

中共延邊韓人自治州教科書分析

연구용
(특별 관찰실)

1984. 12

國土統一院

원 내 간 행 물 인 텍 스 카 드

※ 분류구분 :

※ Code No :

자 료 명	중공연변 ^한 자치주 고 각서 분석			자 료 구 분	일 반
발 간 부 서	조사연구	실(국) 제4연구관실	담당관 (과)	발행년월일	84. 12 .
발간업체명	성 문	(Tel :)		발행부수	100 부
발행목적	대중공 고포정채 수립을 위한 대비자료				
주배포대상	원내및 유관기관				
발간책임자 및 참여자	직명(급)	보좌관(5급)	성 명	서 성 우	
참고사항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년 월 일	

※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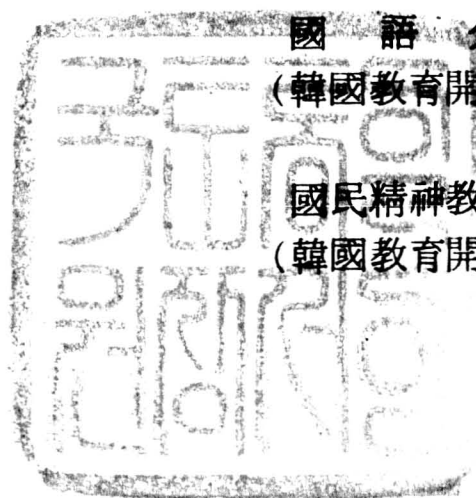
- I .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北韓實態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中共延邊 韓人自治州 教科書分析

研究責任者

國語分野 남미영
(韓國教育開發院國語教育研究室長)

國民精神教育分野 남궁달화
(韓國教育開發院道德教育研究室長)



刊行責任者 徐成雨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中共延邊 韓人自治州國語教科書分析研究

—南·北韓과 比較하여—

研究責任者 남 미 영
(韓國教育開發院
國語教育研究室長)

차 례

I . 머리말	5
II . 무엇을 가르치는가	9
1 . 국어교육의 영역	10
2 . 주 제	15
3 . 가치관	27
① 경제관	27
② 인간관	30
③ 대 외국관	34
④ 종교관	35
⑤ 가정관	36
III . 어떻게 가르치는가	40
1 . 언어실태	40
① 어휘의 차이	40
② 음운의 차이	49
③ 문법적 차이로 이질화된 어휘	54
④ 표기법	58
2 . 표현형식	62
IV . 맺음말 및 제언	71
* 영문초록	73
* 참고문헌	77

〈 표 목 차 〉

< 표 1 >	국어 영역분류	11
< 표 2 >	주제 분석	16
< 표 3 >	대 외국관	34
< 표 4 >	장르 분석	63
< 표 5 >	전기에 나타난 인물	64
< 표 6 >	동화의 내용 분석	67
< 표 7 >	시의 형식과 내용	69

I 머 리 말

광대한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중공은 약 60여족의 소수민족(少數民族)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백만명 이상의 민족을 가지고 있는 10대 소수민족중의 하나가 한인(韓人) 동포들이다. 이들의 숫자는 통털어 200만명¹⁾으로 추산되는데 그들은 주로 길림성(吉林省) 흑룡강(黑龍江), 요령성(遼寧省), 내몽고(內蒙古)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 중 1952년 9월 3일 길림성 5개 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중공 헌법 제 4조와 제 24조²⁾에 의해 延邊 朝鮮族 自治州를 창설하게 되었다. 연변에 있는 한인 동포의 숫자는 120만명³⁾에 달하며 전체 한인 동포 숫자의 60%에 해당한다.

그들은 자치주 창설이후 민족 고유의 언어생활과 문화교육 등을 통하여 민족의 특성을 지켜나가고 있다. 즉, 그들은 한인동포들을 위한 많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및 1개의 종합대학과 7개의 단과대학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병원, 텔레비전 방송국, 신문사 및 10여개의 출판사와 잡지사도 가지고 있다. 법정과 공식회의, 각급 학교에서 한글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거리의 표시 상호(商號)와 공공의 게시판에는 한글과 아울러 중국어가 사용되고 있다.⁴⁾ 요컨대 120만이라는 숫자로만 나타나는 그들은 여러가지 경로를

주 1) 중공 연구소, 중공요람, (유림출판사), 245 p

2) 위의 책, 242 p

3) 위의 책, 245 p

4) 玄雄, 玄鳳學, 중공속의 韓人들, 汎洋社, 12 ~ 13 p

거쳐 중공땅에 살게 된 우리 민족의 일부이다.

본 연구는 연변의 한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꿈꾸며 어떤 생각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즉 그들의 의식구조(意識構造)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사회적으로 규정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길들여진다.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요인(構造的要因)은 그동안 여러갈래로 연구되어 왔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象徵的 相互作用論)의 선구자인 「미드」는 언어가 인간의 의식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언어는 사회적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고 언어의 학습과 사용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배운다는 것이다. 언어속에 담겨진 의미를 알게되고 특정 언어가 타인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가를 깨달음으로써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는 사회화의 성과를 알게 된다. 이것은 곧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인간의식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는 그들이 사용하는 국어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의식구조를 추출해 내고자 한다. 인간 형성을 위한 요인분석(要因分析)이 학교교육, 특히 국어교과서의 분석만으로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언어교육의 도구임을 인식할 때 인간형성의 제 1 도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어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가치관(價値觀)의

실태와 언어현실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남한의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와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와 비교의 논리속에 투입시켜 봄으로 결과를 얻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남·북한과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요인을 추출하여 남·북한의 영향 관계에 까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남·북한의 거리를 결정지어 줄 것이며, 따라서 정책의 틀을 제시해주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 현재의 중공은 하나의 중대한 정치적 전환을 겪고 있다. 1976년 9월 모택동의 사망은 중국사(中國史)의 한 시대의 종식과 전혀 새로운 한 세대의 출발을 시작한 것이다. 이 새로운 시대는 미래의 정치·경제·군사 및 외교정책에 대하여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 중공속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인들의 의식구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示唆點)을 제공해 줄 것이며, 따라서 국토통일문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리라 믿는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국어교과서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전일제소학교(全日制小學校)⁵⁾ 3·4·5·6학년용(1980년도판)과

주 5) 1964년 중공 당국은 兩種教育制度和 兩種勞動制度를 집행한다는 방침아래 ‘半工半讀’ 혹은 ‘半農半讀’이라는 이름으로 간이소학교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1965년에 와서 ‘耕讀小學校’로 개칭하여 글자 그대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소학교임을 명백히 하여 왔다. 이에 비해 구제도대로 공부만 하는 소학교를 ‘전일제 소학교’라고 한다. 일제 소학생이 9천만 명, 경독 소학생이 2천만명으로 알려져 있다.(중공요람, 219p)

북한의 평양 교학도서 출판사 3·6 학년용(1983년도판)과 일본 동경 학우서방의(1974년도판)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용이며, 남한의 교과서는 현행 3·4·5·6 학년용임을 밝혀둔다.

II. 무엇을 가르치는가

한 나라의 국어교과서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의 문제는 한 나라의 국어교육의 목표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와 같다.

한국의 경우 1981년 제5차 교육과정(教育課程)⁶⁾에서

“학교교육은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있는 사람,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적인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 주어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된다.”

고 함으로써 교육의 목표를 인간교육에 두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전(教育前)의 원리를 구현하며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패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고 사회주의 헌법 제39조⁷⁾에 밝히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어 교육의 목표를 이념교육(理念教育)에 두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중공속에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국어 교육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방법으로 첫째

주6) 문교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1p

7)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253p

국어교과서의 영역(領域) 추출, 둘째 국어교과서의 주제분석, 셋째 국어교과서에 나타나 있는 가치관 추출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방법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국어 교육이 제시하는 인간형(人間型)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한국과 북한의 국어교과서와 비교해 봄으로 그들의 인간형이 남북한 어느 곳에 더 닮아갈 것인가를 추측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국어 교육의 영역

국어 교육의 영역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읽기, 쓰기의 기본 기술(技術)과 말하기와 듣기의 회화영역과 정서 순화의 영역인 문화영역과 언어체계의 지식인 문법영역으로 나뉜다. 한국의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이해·표현(말하기·듣기·읽기·쓰기)과 문학·언어로 나누고 있으며, 이 모든 영역을 국어책속에 분산하여 놓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국어책외에 말하기 문법을 별책으로 분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연변은 조선어문(朝鮮語文)이란 이름으로 한국과 같이 국어의 여러 영역을 한 책속에 포함한다.

연변의 교과서가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고 꾸며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말하기, 듣기의 회화영역, 독해, 독서의 읽기영역, 쓰기 짓기의 영역, 문학감상의 문학영역, 언어지식의 문법영역등 5영역으로 나누어 세 나라의 교과서를 분석해본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읽기와 문학은 서로 비슷한 영역일 수도 있으나 생활문을 중심한 단순한 읽기자료는 읽기영역에, 문학작품인 경우에는 문학영역으로 분류했다.

<표 1> 국 어 영 역 분 류 (단위 :%)

주제영역	나라 학년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3	4	5	6	계	3	4	5	6	계	2	3	6	中 1	계
1. 회 화 영 역		5	5	8	11	29	11	10	0	8	29	36	29	32	38	135
2. 읽 기 영 역		19	36	36	39	130	51	52	56	62	221	26	48	30	34	138
3. 쓰기·짓기영역		31	21	17	6	75	4	4	14	4	26	16	0	13	5	34
4. 문 학 영 역		45	38	36	36	155	34	34	30	26	124	10	23	19	23	75
5. 언 어 영 역		0	0	3	8	11	0	0	0	0	0	12	0	6	0	18
총 계		100	100	100	100	400	100	100	100	100	400	100	100	100	100	400

위 분석표의 현황을 간단히 부등호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 회 화 영 역 : 남한=연변 < 북한
- 읽 기 영 역 : 연변 > 북한 > 남한
- 짓기·쓰기영역 : 남한 > 북한 > 연변
- 문 학 영 역 : 남한 > 연변 > 북한
- 언 어 영 역 : 남한 > 북한 > 연변

위의 분석에 나타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국어 교육의 특징은 읽기영역의 강세(強勢)와 언어영역의 약세(弱勢)에 있다.

이에 비해 북한교과서는 회화영역의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

의 교과서는 문학영역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대하여는 그 나라의 교육 목표가 기여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39 조>에서 밝힌 바와같이 북한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사상의 표현을 위해 말하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그들의 사상을 읽기영역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남한은 '심미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통한 인간성 계발(啓發)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영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연변은 읽기영역이 강세를 보이는데 그 읽기영역의 소재들을 다시 분석해보면 과학적 소재, 이데올로기적 소재, 생활습관에 관한 소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의 대부분이 과학적 소재로 되어 있다. 이것은 중공의 <교육강령>속에 나타나 있는 「문화교육은 신민주주의적(新民主主義的) 즉 과학적, 민족적, 대중적, 문화교육이어야 한다」⁸⁾는 조항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원리이다.

연변 교과서의 문학영역의 경우 연변은 비울적인 면에서 북한과 남한의 중간적 입장에 놓여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학영역을 살펴보면 그 성격도 남한과 북한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로서 전일제소학교 6학년의 21과 <새동무>를 보면,

두메라 산골

길가던 둥글황소

주 8) 중국연구소, 중공요람, 유림출판사, 214p

달려오는 《철소》앞에
버티고 섰네.

길을 내라 통통통
호령을 내렸건만
두메산골 힘장사는
적수만 노려보네.

참고참던 《무쇠소》

으릉으릉 달려드니
줄행랑을 놓으려다
주춤주춤 뒤걸음질

둥글황소 영 각소리

높기도 하지만
뜨락또르 동음속에
삼키우고 말았네.

두메라 산골에도
농업출로 열렸으니
기계화의 시대앞에
길을 내여줘야지.

위에서 보듯이, 형식은 문학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산업화, 농촌 근대화의 사상을 노래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연변의 교과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문학영역의 한 현상이다.

중공의 문예정책은 모택동이 1942년 「연안 문예 좌담회」석상에서 제시한 내용이 지금까지 정책방향으로 채택되고 있다.⁹⁾ 그 내용을 보면 “문예란 반드시 勞·農·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하며, 문예는 반드시 정치에 종속되어 그 정치이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동시에 문예공작자(文藝工作者)는 반드시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고 당의 입장에서 서서 노·농·병에 깊이 파고들어 군중으로부터 배움으로서 비무산 계급의 사상과 감정을 개조하여 비로소 문예 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이룩해야 한다.”¹⁰⁾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효용(效用)의 문학관은 중공뿐 아니라 공산국가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연변의 문학도 같은 계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전일제소학교 3학년의 <첫눈>을 보면,

눈아눈아 내려라
 송이송이 내려라
 공사벌에 쌓여라
 밀보리밭 덮어라
 새해에도 풍년들게
 소복소복 쌓여라.

눈아눈아 내려라
 지붕들을 덮어라

주 9) 앞의 책, 227p

10) 앞의 책, 227p

창문턱에 쌓여라
누가 복습 잘하나
조용조용 엇봐라.

눈아눈아 내려라
평-평- 내려라
마른가지 꽃피우며
운동장에 쌓여라
눈싸움도 신나게
자꾸자꾸 내려라.

위에서 보듯이, <첫눈>이란 시는 앞의 <새동무>에서 발견되는 효용성은 발견되지 않는 순수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변의 문학은 남한의 순수문학의 성격과 북한의 효용(비순수) 문학의 양면을 모두 갖고 있다. 즉 자유와 반공의 양쪽 영향권안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연변의 국어교육은 1950년대 한국의 국어교과서가 지향했던 것과 비슷한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형의 읽기자료로서의 교과서이며, 남한은 인간성 계발을 위한 자료제시형의 교과서이며, 북한은 사상주입(思想注入)을 위한 말하기 교본식의 세뇌형(洗腦型) 교과서임을 알 수 있다.

2. 주 제

한 교과서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는 주제로서 구체화된다. 이

장은 연변과 남·북한 교과서에 공동으로 나타나는 주제 및 어느 한 교과서에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특이 주제를 모아 16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주 제 분 석 (단위 : %)

주제영역	나라 학년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3	4	5	6	계	3	4	5	6	계	2	3	6	中 1	계
1. 애국애족		6	3	19	22	50	26	20	12	12	70	52	49	66	52	219
2. 사랑·우정		15	15	3	16	49	0	0	0	8	8	4	0	0	3	7
3. 정직		3	0	3	3	9	10	0	0	4	14	0	0	0	0	0
4. 효도·보은		10	6	6	3	25	4	0	8	0	12	0	0	0	3	3
5. 근면·근로·검소·참을성		10	15	6	3	34	4	9	15	12	31	9	12	4	0	25
6. 협동		3	9	0	3	15	4	7	4	0	15	3	0	4	0	7
7. 반미		0	0	0	0	0	0	0	0	0	0	11	3	11	3	28
8. 반일		0	3	6	6	15	4	0	0	12	16	0	0	0	3	3
9. 동물애		10	3	13	3	29	0	0	0	0	0	0	3	0	0	3
10. 자연(국토)예찬		20	17	6	13	56	7	14	0	8	29	9	0	0	3	12
11. 검손·희생·양심		6	0	0	0	6	7	10	12	4	33	3	0	4	3	10
12. 창조·탐구력 지혜		10	14	28	22	74	30	27	23	23	103	3	3	0	0	6
13. 준법정신		0	6	3	0	9	0	7	8	0	15	0	0	0	6	6
14. 용맹·용기		0	0	0	3	3	4	0	0	4	8	0	6	4	6	16
15. 평등(프로레타리아적 입장)		0	0	0	0	0	0	7	12	8	27	6	6	7	3	22
16. 향수		3	0	0	0	3	0	0	4	4	8	0	0	0	0	0
17. 기타		4	9	7	3	23	0	0	2	1	3	0	18	0	15	33
총 계		100	100	100	100	400	100	100	100	100	400	100	100	100	100	400

위의 표에서 나누어 본 주제의 각 항목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 애국·애족은 국가와 민족적 차원의 글을 말하는 것으로, 남한은 민족성 및 자유주의적 주제, 북한은 공산화 달성을 촉구하는 주제, 연변은 공산주의적, 민족주의적 주제를 말한다.
2. 사랑·우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랑·우정으로서 강요된 것이 아닌 자발적인 것을 말한다.
3. 정직은 개인적 인간성에서의 정직을 말한다.
4. 효도·보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사랑으로서 효도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가정적 분위기를 말한다.
5. 근면·근로·검소·인내는 개인적 수련의 주제를 가진 생활적인 것을 포함한다.
6. 협동은 소규모의 사회인 친구, 형제, 이웃간의 협동을 말한다.
7. 반미사상(反美思想)은 1의 애국·애족과 관련을 갖고 있으나 특히 반미를 주제나 목표로 구성한 단원을 말한다.
8. 반일(反日)도 같은 종류의 단원이다.
9. 동물애(動物愛)는 동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원을 범주에 넣었으며,
10. 자연(국토)예찬은 동물이 아닌 식물이나 무생물인(땅·산·강)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나타낸 단원을 말한다.
11. 창조·탐구력·지혜는 탐구정신과 창조정신의 계발을 목표로 대개 과학정신, 발명정신을 주제로 하는 단원을 포함했다.
12. 준법정신은 개인적이거나 단체적이거나 규칙생활을 위한 규범을 다룬 단원이며,
13. 용맹·용기는 개인의 용맹성을 찬양한 주제이다.
14. 평등은 상·하의 구조를 부인하는 프로레타리아적 입장을 말하는 단원이며
15.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단원을 말하며, 그 이외의

주제는 17항의 기타에 넣었다. 기타의 항은 위의 16개의 항목에 속하지 않으며 세 나라간에도 동질성이 없는 전혀 개별적인 주제를 지닌 단원을 포함시켰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볼 때, 연변의 국어교과서의 주제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남·북한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

둘째, 남한과 북한의 중간적 입장에 있는 주제

셋째, 남한과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주제

넷째, 북한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주제이다.

① 남·북한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

겸손·희생·봉사·양보로 구분되는 11항과 창조·탐구·지혜로 구분되는 13항, 향수로 지칭되는 16항으로 이들 주제는 남·북한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12항 창조력, 탐구력의 주제이다. 이들을 부등호로 표시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겸손·희생·봉사·양보

연변 > 남한 ≒ 북한

12. 창조·탐구력·지혜

연변 > 남한 > 북한

13. 준법정신

연변 > 남한 > 북한

16. 향 수

연변 > 남한 > 북한

<창조·탐구력·지혜의 주제>

중공의 과학분야는 널리 알려진 바와같이 아직까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¹⁾ 특히 생활의 과학화는 시급한 형편이다.

1970 년대에 들어서면서 U.N에의 가입을 계기로 미국·일본을 비롯한 강대국과 거래를 가지면서 외교를 이용하여 과학전반에 걸쳐서 선진기술 도입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지금 중공은 과학만이 살 길이라는 이념아래 130 여개¹²⁾의 과학연구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공의 과학의 집념을 잘 알수 있다. 또한 중공은 실제로 1949년 중공정권의 수립후 첫번째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공산화 교육 계획의 목표」를 “중화 인민 공화국의 문화 교육은 신민주주의적 즉,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인 문화 교육이어야 한다”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변 교과서의 탐구력, 창조력의 강세는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며, 또한 연변의 총체적 기류는 중공의 교육정책을 따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표에서 볼 때, 남한의 교과서도 탐구력, 창조, 지혜가 강세인데 비해 북한의 교과서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북한이 사상성 강조에 주력하며, 개인의 탐구·창조정신은 중요하게 여

주 11) 국방과학은 군의 현대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력을 기울여 선진대열을 따라 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특히 원자과학의 급진적 발전이 그 예이다.
(중공요람, 201 p)

12) 앞의 책, 203p

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개인을 국가의 한 부속품으로 맞추려는데 비해 남한과 연변은 개인을 하나의 개체로 보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엇보인다고 할 수 있다.

<겸손·희생·봉사·양보의 주제>

겸손·희생·봉사·양보의 특징은 높은 빈도는 아니나 남한과 북한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중공이 공산화의 목적을 위해 중국 본래의 교육제도를 완전히 폐기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주의 공산국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¹³⁾ 아직까지 중국 재래의 사상이 연변에는 많이 남아 있음을 암시해 준다.

또한 연변의 한인들이 아직까지 유교가 제시하는 겸손·양보등의 겸양지덕을 가치규범속에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 항목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남한은 서구사상의 전래로 겸양지덕의 전통적 가치관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은 프로레타리아적 평등사상 아래 유교적 가치관 내지 전통적 가치관을 몰아내고 존·비, 상·하의 개념을 평등으로 수정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향수의 주제>

연변의 교과서는 향수를 주제로 한 작품을 8% 싣고 있고, 남한

주 13) 앞의 책, 214p

은 3%, 북한은 전혀 없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향수를 주제로 한 작품 8%는 어느 지역을 특히 지칭한 것이 아니고 막연히 고향이라고만 불리워지고 있는 땅이다. 그들 중 북한이 고향인 사람은 북한땅을, 남한이 고향인 사람은 남한땅을 고향으로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아직도 고향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준법정신의 주제>

준법정신은 남·북한 보다는 높으나 특이한 특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남한과 북한의 중간적 입장에 놓여있는 주제

위의 표에서 남한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효도·보은사상의 4항과 근면·근로사상의 5항과 자연예찬의 10항인데 비해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애국·애족의 1항과 용맹·용기의 14항이다. 이 다섯개의 항목에 있어서 연변은 중간적 입장에 있다. 즉, 부등호로 표시해보면,

1. 애국·애족 : 남한 < 연변 < 북한
4. 효도·보은 : 남한 > 연변 > 북한
5. 근면·검소 : 남한 > 연변 > 북한
10. 자연예찬 : 남한 > 연변 > 북한
14. 용맹·용기 : 남한 < 연변 < 북한

<애국·애족의 주제>

애국·애족의 주제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주제로 다룬 것으로 북한이 가장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치닫고 있는데 비해 연변이 둘째 남한이 세째로 나타난다. 이는 연변의 교육이 북한과 같이 광신적 공산주의 주입형 교과서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된다.

<효도·보은의 주제>

효도·보은의 사상에서 볼 때, 남한이 가정적 분위기의 효도사상을 높게 두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거의 없다시피한 것과는 달리 연변은 16%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말살된 가정적 가치관이 연변에서는 아직 살아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전일제소학교 6학년 교과서 20과(99p)의 <할아버지>란 단원을 보면, 경노사상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일하시는 할아버지의 독립성을 찬양하고 있어 일하는 노인의 모습을 미화시키고 있다. 노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북한의 교과서와는 다른 현상이다. 남한 교과서 4학년 <손녀의 손>에서 “할머니방의 청소는 항상 내가 한다. 세숫물도 떠다 드리고, 작은 아버지와 고모에게서 온 편지도 읽어드린다. 나들이 가실 때에는 모시고 가기도 한다” 처럼 남한의 노인들은 편히 쉬고 대접을 받는 입장이다.

연변의 경우, 노인의 모습에서 볼 때, 경노사상은 서로 비슷하나 남한이 편히 사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비해 근로하는 건전한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노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근면·검소의 주제>

남·북한 및 연변의 교과서에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 항목이다. 근면·검소정신은 한국의 전래동화 문학의 주류 사상으로 한국인의 의식구조속에 굳게 뿌리박고 있는 기본사상이다. 따라서 세나라의 교과서에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북한은 집단농장제도 등으로 인해 검소나 근면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낮은 빈도를 보이고, 남한은 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사회구조이므로 이 항목이 높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변은 북한보다 덜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중간위치에 처하고 있다고 본다.

<자연예찬의 주제>

표에 나타난 비율로 볼 때, 남한의 교과서에서 자연예찬은 최고 빈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북한은 아름다운 금강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연예찬의 빈도가 낮다. 남한의 자연예찬이 주로 시 작품에 몰려 있는데, 북한의 시는 사상시의 모습이며, 자연예찬의 작품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여 연변 교과서 속에는 자연예찬이 북한보다 월등히 많이 나타난다. 시·기행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연예찬은 주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감상과 느낌을 노래한 것인데 이때의 자연은 인간의 환경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자연은 진·선·미의 본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연변 교과서가 제시하는 자연예찬의 주제는 북한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기·용맹의 주제>

분석결과 이 항목의 주제는 북한 > 연변 > 남한의 차례로 그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용기·용맹은 공산혁명을 위해 개인의 목숨도 초개같이 던지는 종류의 것이 미화되어 찬양되고 있다. 이에 비해 남한은 3·4·5·6 전체에서 불과 3%뿐인데 이것은 <기사 임명식>이라는 단원으로서 씩씩하고 용감한 기사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으로 개인적 용기의 모습이다.

연변은 북한과 남한의 중간적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용기의 개념은 국가, 민족을 위한 모습으로 북한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③ 남한과 같은 입장의 주제들

표에서 보면 연변과 남한이 서로 비슷한 빈도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다. 3항의 정직, 6항의 협동, 7항의 반미, 8항의 반일이다.

<정직의 주제>

정직은 인격 함양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전통사상은 이것을 선(善)의 중요한 항목으로 추구하고 있었다.

정직의 빈도를 보면 남한은 9%, 연변이 14%라는 빈도에 비해 북한은 한 단원도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연변과 남한이 인격 함양에 정직한 인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비해 북한이 지향하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상에서 정직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협동의 주제>

이 항목은 세나라의 교과서가 서로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남

한과 연변에 비해 북한이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것은 그들의 사회체제가 이미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는 까닭일 것이다.

<반미의 주제>

북한의 교과서는 전체의 28%가 반미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과 연변은 똑같이 반미사상이 한 단위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같은 공산국이지만 연변은 미국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비하여 북한은 미국을 적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1950년 이후 적대관계에 있던 미국과 중공이 1971년 공식적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문호를 개방하여 1979년 초보적연합(Proto-coalition) 또는 준동맹(Guasi alliance)으로 불린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으며, 1980년 초반 미국방장관 부라운과 중공 부수상 경표(耿飚)간에 교환방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중관계는 새로운 단계 즉, 양국이 소련에 대항하는 협력관계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 대미외교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반일의 주제>

그러나 반일에 대해서는 세나라의 교과서가 서로 비슷하게 반응한다. 남한이 15%, 연변이 16%인데 비해 북한이 3%인 것은 분석 교과서중 2권이 동경학우서방의 조총련 교과서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로서 반일감정은 3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으며, 특히 연변의 한인에게 있어서 일본은 고국을 떠나게 한 장본인임으로 증오의 대

상으로 중공과 일본의 복교(復交)나 대일정책과는 관계없이 앞으로
도 오래오래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④ 북한과 비슷한 주제들

북한과 연변이 비슷하게 반응한 주제는 2항의 사랑·우정과
9항 동물애, 15항 평등사상이다.

<사랑과 우정의 주제>

사랑과 우정에 대한 남한의 비율은 54%로 높다. 이에 비해 북
한과 연변은 8%, 9%로 각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
은 애국·애족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현상이다. 공
산주의 체제에서 개인적 차원의 사랑보다 국가적 차원의 사랑에 가
치규범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나라의 교과서가 같은 공산체제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
석된다.

<동물애의 주제>

동물에 대한 남한의 주제는 40%로 높다. 그러나 북한과 연변
은 거의 없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이 동물에게까지 애정을 베풀 여
러가지 여유가 없으며, 인간적 정서가 고갈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평등사상의 주제>

자유주의 체제인 남한에 있어서 '평등사상은 개념차이로 인하여 거
의 없다. 그러나 공산체제인 두나라는 연변의 27%, 북한이 22%

로 끌고루 나타나있다. 이것으로 역시 연변은 기본적으로 공산국가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상 16개의 주제로 살펴본 결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국어교과서의 주제의 특징은 창조적 . 탐구적 주제의 강세, 근면 . 근로의 주제의 강세, 애국 . 애족의 강세와 반미사상과 동물애의 전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말해 연변의 한인들의 과학에 대한 강한 의지와 동양적 전통사상의 고수, 공산이념의 고수, 친미적 외교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들의 생활이 아직까지 자신들의 의식주이외로 눈을 돌릴 겨를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그들이 중공속에 있으며, 중공의 이념, 중공의 전통, 중공의 외교노선, 중공의 교육목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향권안에 놓여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3. 가치관

가치관은 인간 행동의 이면(裏面)에 작용하는 하나의 철학이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은 조직되고 의미가 부여된다. 그러므로 한 인간, 한 국민의 가치관이란 그들의 생존의 의미가 된다. 연변 교과서에 나타나는 가치관의 모습을 경제관, 인간관, 종교관, 가정관, 대외국관(對外國觀)으로 나누어서 남·북한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① 경제관(재물관)

연변 교과서에 나타난 경제관의 특징은 첫째, 가난의 모습 미화(美化)와 부(富)의 모습 증오현상과 둘째, 소득분배의 인정(人情)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가난의 모습이 미화된 예이다.

- 우리보다 가난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3학년, 34p)
- 식사때 통신원은 상사밭에다 수수밥을 수북이 담았습니다…… (중략) ……그때 항일부대는 나물과 풀뿌리 도토리가루로 몇달씩 끼니를 에우기가 예사였습니다. (5학년, 83p)
-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5학년, 44p)
- 같이 공부하는 한 아이는 집이 구차하여 점심밥을 못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그애는 어디론지 피하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모주석께서는 점심밥을 들고 그애를 찾아가서 늘 같이 자셨습니다. (3학년, 34p)

등으로 가난=미(美), 가난=선(善)으로 나타나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미, 최고의 선으로 표현된다.

다음은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의 모습이다.

- 이 마을에는 지주 마누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누라한테는 양이 66마리, 과일나무가 77그루, 비단이 88케짜, 땅이 99무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뚱뚱하여 보기에도 흉한 이 지주마누라는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

었습니다. (4학년)

- 그런데 지주네집 애들은 저강도 저들 것이라고하며, 가난한 집 애들을 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5학년, 42p)

등으로 표현되며, 적개심과 증오심을 나타낸다. 이 점은 북한 및 조총련 교과서와 상당히 비슷하다.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서에는

- 숙이의 아버지 어머니는 마을에 사는 황지주놈의 머슴을 살다가 일찌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악독한 지주놈은 겨우 열살난 어린 숙이마저 머슴으로 끌어갔습니다. (3학년, 26p)
- 도끼눈을 하고 팩 소리지른 것은 뜻밖에 정주사네 마름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약값을 받으러 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약값은 물고도 남았겠는데 그 무슨 리자가 새끼쳤다면서 자꾸만 두곱세곱이나 더내라고 야단입니다. (6학년, 142p)

와 같이 가난과 부를 미와 추로 대립시키고 있다. 북한과 연변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재물에 대한 가치관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물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는 북한과 연변이 큰 차이를 보인다.

연변 교과서 3학년의 <돌배 탄 이야기>에서 ‘노루와 양과 토끼는 힘을 합쳐 탄 돌배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침만 꿀떡꿀떡 삼키고 있는 산돼지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로 일

하지 많은 산돼지에게도 정을 베풀어 배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되었으나 북한 교과서에 나오는 동일한 소재인 <돌배 탄 이야기>에서는 ‘노루, 염소, 토끼는 잠깐 사이에 돌배를 수북이 따놓고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산돼지는 한알도 따지 못했기 때문에 군침만 꿀꺽 삼켰습니다’로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연변한인들의 의식구조가 북한 주민들보다 인도적이라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지난 1984년 10월 20일 중공 당 3중전회(三中全會)에서 “빈곤이 사회주의일 수는 없다”는 슬로건을 내건 것으로 보아 중공 땅에서 빈곤의 찬양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연변의 교과서에서 빈곤의 모습은 수정돼 가리라고 본다.

② 인간관

연변 교과서속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가치의 특징은 첫째,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둘째, 목적을 위해서는 목숨을 초개같이 버릴 수 있다는 생명극복의 사상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현세에 완전히 열중하는 인간이지 내세에 열중하는 인간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죽음을 곰곰이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위해 투쟁하는 인간¹⁴⁾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죽음은 무(無)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대하여 피동적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 일수록 무가치

주 14) 마렉 프리쯔 한즈, 사회주의 인간론, 사계절, 141p

해지며, 죽음과 먼 젊은 사람 일수록 존경받는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특히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다르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낮과 밤의 관계처럼 같은 질서의 다른 모습일 뿐이며, 죽음 다음에 삶의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이 살았다는 것은 존경의 조건이 된다. 연변은 이러한 가치면에서 남한과 가깝다.

연변 소학교 5학년의 <세 어린이>라는 시는 다음과 같이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낸다.

빨간 저녁노을 곱게 물들제
양돈장에 왔지요, 세 어린이.
중대장 철호동무 앞장에 서고
그뒤엔 성철이와 꼬마 영숙이.

광주리 가득가득 풀을 담고서
구슬땀 흘리며 달려온 애들,
《할아버지, 할아버지—》 불러봤건만
할아버진 《집》에 안계시겠지.

세 어린이 소곤소곤 의논하더니
서로 보며 좋아라 손뼉을 쳤죠.
팔소매 썩썩 걷어올리고
부리나게 일손을 다그쳤지요.

양돈장의 트랙을 말끔히 쓸고

구유마다 파란 풀 골고루 주며,
누구하나 뒤질세라 신나게 척척
세 어린이 일할수록 힘이 솟았죠.

사양원 할아버지 들에 나가서
돼지풀 가득신고 돌아와보니
양돈장이 깨끗하게 변하였겠죠,
취도 새도 모를 일 누가 했을까?

할아버지 휘휘 둘러보는데
감쪽같이 뛰쳐나온 세 어린이,
《할아버지 어서 잘 검사해줘요.》
나란히 《차렷》하고 경례드렸죠.

《너희들 참 훌륭하구나.》
할아버지 싱글벙글 치하하는데
소선대원 세 어린이 함께 하는말—
《할아버지에 비하면 어림없어요.》

그러나 북한의 2학년 교과서의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젊은 시절에 머슴살이 하던 할아버지의 회상조 이야기이며, 중학 1
년 교과서의 <회령집 할머니>는 남한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을 아
들을 생각하며, 한숨짓는 노인으로 그려져 있다. 즉, 북한 교과서속
의 노인의 모습은 존경심과는 관계없이 이데올로기의 선전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 생명,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어린이의 생명에 가치를 두고 있다.

- 김일성 장군님께서서는 소년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북한 중 1 교과서)
- 조국은 너희들에게 무엇이나 해준다. (북한 중 1 교과서)

등등 노골적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이에 비하여 연변과 남한은 어린이 존경사상을 은근하게 나타내고 있다.

둘째로 생명초극사상은 북한과 연변이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 죽일테면 죽여라. 공산당원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 (중략) …… 열다섯살 밖에 안된 그는 인민의 해방사업을 위하여 나어진 목숨을 선뜻이 바쳤습니다. (연변 3 학년, 129p)
- 《자, 쏘려면 쏘라.》 그는 포신앞에 앞가슴을 들이대며 …… (북한 6 학년, 33p)

위에서 보듯이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생명초극사상이나 생명 경시사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여기에 비해 생명에 대한 남한의 관점은 다르다. 인간의 생명은 물론 상한 토끼를 간호해 주고(국 6년), 병든 황새를 병원으로 데려간다. (국 5년) 연변과 북한이 생명경시 사상을 보이고 남한은 생명존중 사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인간에 대한 세 나라의 가치관의 특징을 열거해 보면 어린이관은 남·북한 및 연변이 비슷하고, 노인관은 남한과 연변이

존경을 나타내나, 북한은 무가치를 나타내며, 생명에 대해서는 연변과 북한이 경시를 나타내고 남한만 존중을 나타낸다.

③ 대 외국관(對外國觀)

남·북한 및 연변 교과서에 나타난 외국관계 소재를 분류하면 아래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표 3> 대 외국 관

나라 대외국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미 국	1	○	△	6	×
일 본	6	×	2	12	×
소 련		△	2		△
자 유 중 국		△	10		△
북 한	4	×	2		△
남 한			△	7	×

(○ : 찬양, 긍정적, 약간 언급될 경우, △ : 언급이 없는 경우, × : 비방, 부정적인 경우, 숫자는 빈도표시)

소재의 빈도로 볼 때, 연변은 자유중국에 대한 부정적(否定的)인 입장의 글을 많이 실고 있으며, 남한은 일본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실고 있고, 북한은 일본, 미국, 한국의 순서로 부정적인 글을 실고 있다. 다시 말해 대외국관에 있어서 연변은 자유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인식하고 일본을 그 다음으로 적대시 한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 남한, 일본을 적대시하고, 남한은, 북한, 일본을 적대시 한다. 그러므로 세 나라가 공동으로 적대시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존경을 나타내나, 북한은 무가치를 나타내며, 생명에 대해서는 연변과 북한이 경시를 나타내고 남한만 존중을 나타낸다.

③ 대 외국관(對外國觀)

남·북한 및 연변 교과서에 나타난 외국관계 소재를 분류하면 아래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표 3> 대 외국관

대외국 \ 나라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미 국	1	○	△	6	×
일 본	6	×	2	12	×
소 련		△	2		△
자 유 중 국		△	10		△
북 한	4	×	2		△
남 한			△	7	×

(○ : 찬양, 긍정적, 약간 언급될 경우, △ : 언급이 없는 경우, × : 비방, 부정적인 경우, 숫자는 빈도표시)

소재의 빈도로 볼 때, 연변은 자유중국에 대한 부정적(否定的)인 입장의 글을 많이 실고 있으며, 남한은 일본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실고 있고, 북한은 일본, 미국, 한국의 순서로 부정적인 글을 실고 있다. 다시 말해 대외국관에 있어서 연변은 자유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인식하고 일본을 그 다음으로 적대시 한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 남한, 일본을 적대시하고, 남한은, 북한, 일본을 적대시 한다. 그러므로 세 나라가 공동으로 적대시하는 나라는 일본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연변의 한인들은 남·북한과 같은 민족적 고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이 1910년 ~ 1945년까지의 일본, 즉 과거의 일본임을 상기해 볼 때, 세 나라의 과거 지향적 사고를 엿볼 수도 있다.

대외국관에 있어서 또하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연변의 반 자유중국관이다. 이것은 연변 주민의 감정적 차원에서가 아닌 중공속의 한인이라는 체제적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④ 종교관

연변의 교과서에는 종교적 소재 내지 종교적 어휘가 한번도 나오지 않는다.¹⁵⁾ 이것은 북한도 같은 현상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석굴암’ ‘다보탑’ ‘부처님’ ‘제사’ ‘천국’ ‘극락’ 등등 종교적 어휘와 소재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공의 헌법 제 3장 88조에 종교의 자유를 기술해 놓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생활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연변 교과서에서 전래적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 난 하느님의 명을 받고 왔소. 하느님은 나더러 못짐승을 거느리라고 했소 (4학년, 48p)
- 이 마귀야 그래 네가 달려들어 남을 해칠 참이냐? (4학년,

주 15) 여기에서 종교란, 편의상 불교, 유교, 기독교를 지칭한다.

128 p)

- 선녀의 웃는 모습이 개울에 비껴있지 않습니까? (4학년, 136 p)
- 늙은 무당과 관리들이 사람을 해치고 돈을 긁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학년, 95 p)
- 도깨비 (6학년, 135 p)

즉, 긍정적인 절대자로 하느님, 선녀, 도깨비가 나오고, 부정적인 절대자로 마귀, 무당, 도깨비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류나 이런 발상은 우리나라 전래신앙의 세계를 지배하는 다신관(多神觀)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전래신앙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 절대자의 자리에 김일성을 놓고 있다.

⑤ 가정관

연변 교과서에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은 대다수가 대가족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즐거운 표정으로 일을 하거나 손자들에게 생활의 예지를 가르쳐주며,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고 기른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대개 엄격하며, 책임감이 있으며,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한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에는 노인은 회상조의 스타일이며, 부모의 모습은 앵무새처럼 '남반부 통일'이나 '김일성 어버이'만을 외친다. 북한의 부모는 정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세포로서 존재하는듯이 보인다.

- 그런데 이 어머니 몰래 배를 꿸았단 말이냐? (연변 3학년, 35 p)

- 벅타이를 여며주시며, 어머니의 두 눈에는 감격의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변 3학년, 39p)
 - 그것을 보신 할머니는 웃으시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너희들이 주은 이삭이 적지 않구나. / >>하고 감탄하였습니다. (연변 3학년, 90p)
 - 동생은 나에게 바싹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언니야, 정말 개가 달을 삼킨게 아니야? >> <<아니다 중략 달은 또 다시 밝아진단다>> 아버지가 싱긋이 웃으시며 알려주셨습니다. <<난 할머니께 알려드릴테야>> 동생은 좋아서 퐁퐁 뛰었습니다. (연변 4학년, 75~76p)
 -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보려 애썼다. 그러나 한번도 본적이 없는 그 얼굴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북한 3학년용, 32p)
 - 창밖에 비뿌리고 날이 저무니 가슴가득 떠오르는 수령님 생각 중략
- 날이 좋으면 수령님 생각
 행복한 순간이면 수령님 생각
 언제나 그 언제나 수령님 생각
 우리의 가슴속엔 어버이수령님 생각뿐이어라. (북한 3학년, 51p)

이와같이 비교해 볼 때, 연변의 가정생활은 혈연관계를 중히 여기고 상하의 개념을 고수하는 가부장적(家父長的) 가족관 내지 전통적 가족관으로 인지되며, 북한은 '김일성 아버지'가 각 가정을 지배하는 물리적 가정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변의 가정관은 전통을 중히 여기는 남한의 가정관과 너무나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좀 다른 현상을 보인다. 첫째, 연변의 노인은 일하는 역할을 담당받고 집안의 주인공으로 존재하는데 비하여 남한의 노인은 편히 쉬고 호의호식하나 가정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둘째, 연변의 여성들은 가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전일제 소학교 4학년의 <호범이의 생각>에서 어머니는 자식을 따끔하게 꾸짖기도 하고 4학년 <목화밭>에서 누나는 목화밭을 맡아 가꾸는 주인공이며, 3학년의 <양선생님>에서는 가장 훌륭한 교사의 역할을 여교사가 하고 있다. 연변 교과서에는 이와같이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남한의 교과서속의 여성은 훌륭한 말을 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옆에서 빙그레 웃거나 과일을 깎는 역할을 할 뿐이다.

셋째, 어린이 역할의 차이이다. 연변 교과서속의 어린이는 항상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의 어린이는 공부를 하거나 노는 모습을 보인다.

이상으로 경제관, 인간관, 대외국관, 종교관, 가정관에서 살펴볼 때,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교과서에 나타난 가치관의 특징은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공산체제의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과 비슷하거나 같은 점이 많다. 즉, 경제관에서 가난한 모습의 미화와 부의 모습을 악화시킨 것, 인간관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릴 것을 강요하는 점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경제관에서 뭇을 나누는데 훈훈한 정이 개입되는 것이나, 노인 존경 사상, 전래의

신앙 등은 북한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연변의 가치관 중에서 남한과 부분적으로 동일한 것과 이질적인 것이 있으나 가장 많이 닮은 점은 전래 신앙의 모습과 전통적 가
정관이다. 연변 한인들의 의식과 생활속에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종교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어떻게 가르치는가

앞에서 살펴본 무엇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그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관심을 갖는다.

우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수단인 언어와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는 형식을 장르별로 살펴보고, 여기에서 남한과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북한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언어실태

언어란 인간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인간의 사회 생활과 문화생활의 기본적 수단이다.

따라서 본항에서는 세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어휘면에서, 음운면에서, 문법적인 면에서, 표기법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국어생활 실태를 알아보려고 한다.

① 어휘의 차이

- 고유어화(固有語化)된 어휘

연변조선족자치주	북한
속다짐(결심)	속다짐
얹음소리(신음)	땀으며 달라지는 소리(자음접변)
땀벌창(투성이)	날창(침)
차잔이다	싸창(총)
까끈히	찬단물(냉차)

연 변 조 선 족 자 치 주	북 한
<p>웃웃 아래기슭 이불등 (날씨가 한결) 물쿠더니 발표모임, 반회모임 시작의 말 셀로판 오리 수정장식등 본 새 껴들어주다 더그매, 부엌간 곤줄매기 코 밥 발편잠 궁근 목소리 칼탕치다 칭맑은 목소리 새그럽히다 굽인돌이 모르쇠를 놓고 자다 깁지다 두리기둥 기계사람, 기계의사 병을 보게하다 옹하다 온데다 (사방에다)</p>	<p>병을 보아주다(치료·진찰) 따라 배우다(본받다) 바탕뜻 두리기둥 갈라진 뜻 연필방아 물바퀴(물레방아) 돌가보(가위바위보) 손풍금(악코디온) 불무지 몸뒤집 날음질 가을것이(추수) 불안고 입말(음성언어)</p>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같이 연변과 북한의 교과서에는 고유어가 상당히 눈에 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나치게 음절이 길어져서 발음이나 표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공감을 얻기 어려운 어휘들이 있는가 하면, 단어의 전체가 고유어화 하지 못하고 단어중간이 잘려 다듬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한자어가 그대로 남아 불균형을 이루는 어휘도 있다. 이밖에도 억지 조어(造語)에 의한 어색함을 주는 어휘도 눈에 띈다. 이것은 1964년과 1966년 두차례에 걸쳐 김일성 교시(敎示)를 통해 외래어 및 한자어를 불식하고 민족의 고유한 어휘를 되살려보자는 취지아래 북한의 「어학혁명」이라는 문화작업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연변의 교과서에서는 현재 남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고유어가 상당수 쓰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어쨌든 고유어 발견을 중심과제로 삼은 순화(醇化) 운동 즉, 말다듬기운동은 남·북한 모두 해방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벌여온 것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서로의 차이는 그 방법과 정도의 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방언(方言)의 실태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가뜬하다		가죤하다		
개 울		개울창		개울창
소리지르다		고아대다		고아대다
가량, 정도		나 마		나 마
내(연기)				내 굴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다그치다		다우치다		
떨어뜨리다		떨구다	떨구다	
들레			두리	
벗		면도		
무척		무등	무등	
부서지다		마사지다		
조직해 놓으면		무어놓으면	무으다	
부엌		부엌간	부엌간	
악물고		사려물고		
소리개		수리개	수리개	
시뜻하다		시뚝하다		
어스름		어슬막		
화롯불			우등불	
뚜렷이		우렷이		
곧, 이내		인차	인차	
부릅뜨다		흡뜨다	흡뜨고 보다	
~였다		~뎃다	~뎃다	
		눈퀴		
		까끈히		
		코밥		
		하냥		

이상에서와 같이 연변의 경우, 북한의 방언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지역적 방언차에 의한 어휘의 이질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용된 북한 방언은 대체로 동북 함경방언과 서북 평양방언이다. 그 주된 원인은 소위 그들의 「문화어정책」이 서북방언에 속하는 평양말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평양방언이 많은 것이며, 1940 년대에 함경지방의 국민을 집단이주 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의 후예가 상당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¹⁶⁾

• 고어(古語)의 사용

한편 연변과 북한에서는 고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사용된 어휘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구를듯	구는, 구을듯	구을듯
눈구석	· 눈굽 < 눈긏	눈굽
위	우	우
날아가다	날아예다	
줍다	줏다	줏다
아내	안해	
빼앗다	앗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연변과 북한이 대체적으로 동질성을 지닌 것들이었다. 다음은 연변과 북한의 어휘가 이질성을 띠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교과서 내용, 편성에 의한 어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 교과서의 내용은 이념과 사상의 주입서(注入書)라고 볼 수 있을만큼 획일적이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회의 등에서 고유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고, 감정적인 어휘의 양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연변의 교과서는 그 내용이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어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전투용어라든가 비·속어 사용은 북한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전투적인 내용이거나 이념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는 적에 대한 어휘가 비·속어로 쓰이긴 해도 그 어휘수나 사용빈도는 극히 적다.

● 호칭 및 감투어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황정승		레닌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할아버지께		모주석께서	경애하는 "	" "
강노인		주은래동지께서	아버이 "	" "
형 님			아버지	원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장군님
형에게			장군님	
임금님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
강감찬장군			사령관	동지
안중근의사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형직	선생님
			김정숙	선생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변과 북한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표현 어휘는 “존함의 앞과 뒤에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담긴 말을 정중히 써야 합니다”라고 인민학교 3학년 교과서 내용으로 극존칭을 나타내는 어휘와 토를 선별 제시까지 해놓아 극상의 어휘만을 쓰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일반적 의미에서 특수화되고, 의미감이 축소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나 방향은 정책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서, 소위 김일성 개인 우상화와 혁명, 건설사업, 그리고 정치선전 및 자본주의 비난을 위한 특수화가 그 목적이다. 즉, 고상하고 숭고하고 위대한 의미를 지닌 어휘는 김일성의 전유물로 제한 축소시켰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열렬한 기상이 있는 어휘는 혁명, 건설사업에 관계되도록 제한시켜 놓았다. 이와 더불어 의미의 가치에 있어서도, 본래 낮은 가치의 의미가 격상(格上), 상승(上昇)화되는 것은 모두 김일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혁명투쟁과 혁명투사들과 관계되도록 지칭하였다.

그러나 연변의 교과서에 나타난 특정인물에 대한 호칭이나 감투어를 살펴보면 모택동이나 그밖의 정치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존칭을 쓰고는 있으나, 김일성에 대한 호칭과 존칭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들면, ‘모주석께서’ 라든가 ‘주은래동지’ 정도로 나오고 그 어휘수나 사용 빈도도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연변에 나타난 호칭어에 있어서는 남한과 그 의미의 가치면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 비어 및 속어

연 변 조 선 족 자 치 주	북 한
까부시다 불아가리 대가리 골 아가리	미제승냥이놈들, 미제침략군놈 미제놈들의 물골, 미제놈이 졌다 지주놈, 지주여편네 지주놈의 쌍통 자본가놈, 잘사는놈 앞의놈, 감독놈, 의사놈 경찰놈, 살인경찰놈 원썩놈, 원썩놈 낫작 보초놈, 뿌리년놈 일제놈 때려부시고 까눕히고, 꼬락서니 불아가리 이년, 요죽일년 전달뱅이 싸갈기시였습니다 대가리를 땅에 푹박으며 족치도록, 지껄이더니

위에서 보듯이, 북한에는 전항(前項)에서 김일성 우상화에 따른 의미의 격상, 상승화에 대조적인 현상을 볼 수 있다. 즉, 어휘가 가진 의미가 격하, 추락된 어휘들을 여기저기서 상당수 볼 수 있다.

이것들은 대부분 그들과 정치체제와 사상, 이념을 달리함으로써, 적대시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에 관련된 것들이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위 제국주의, 자본주의, 부르주아적 착취계급의 정치·사회·문화·경제·종교등을 부정적으로 해석, 선전하려는 의도에서 유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의미가치가 격하된 어휘가 북한의 교과서에는 무수하게 산재해 있다. 연변의 교과서에서는 비·속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비·속어와 관련하여 연변의 교과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가리, 아가리, 눈깔’ 등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비·속어로 쓰인다기보다 동물이나 사물에 사용하여 사람의 머리와 입·눈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의성어 및 의태어

또 한가지 연변 교과서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양상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를 표로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살금살금		발뽕발뽕 걸어가서 발뽕발뽕 옮겨디디며 쿵챙쿵챙 팽파리, 북소리	살금살금	
똑똑		뚱뚱뚱뚱 사과, 배 떨어진다		
둥둥		둥다라 둥다라	둥둥	
두둥실		둥덩실	두둥실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깡충깡충	퐁퐁뛰다 거들렁 거들렁 아글타글 살아오다	깡충깡충
질경질경 썩다		질금질금 썩다

② 음운의 차이

- 모음변이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바지가랭이	지팽이
욕심쟁이	꾸레미
구텡이	
꾸레미	
한뭉텡이	
웨치다 < 외치다	웨치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하는 후설모음(後舌母音)이 후행(後行)하는 ‘ㅣ’ 모음의 역행동화작용을 받아 변음(變音)된 어형을 교과서내에 그대로 표기하고 있는데 대체로 ㅏ+ㅣ → ㅕ+ㅣ, ㅑ+ㅣ → ㅕ+ㅣ의 분포가 많고, ㅓ+ㅣ → ㅕ+ㅣ, ㅗ+ㅣ → ㅕ+ㅣ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연변이나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주로 방언적 현상으로 많이 나타난다.

• |모음순행동화(|母音順行同化)

연 변 조 선 족 자 치 주	북 한
되었습니다, 되어서, 되었나	뛰어나왔다, 뛰어다니던
일곱살이었습니다, ~것이었습니다	뭉치였죠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되어야
뛰어오는, 뛰어라, 뛰어들어가	쓰시되
피여날 것 같고, 피어나죠	끝내시었습니다, 주시었습니다
기어나오다, 기어나가다	때리었습니다, 디디었습니다
줄이었다	허여지다
혜염	띄여쓰기
띄여쓰기	기여오고 있었었습니다
태어난 곳	피여난
내여보내다	이어나르던
내여주다	떼여달다
휘여잡다	드디어
보태여	
기대여서서	
싸우려, 쉬였으면	
당기여, 묻히여	

선행하는 |모음의 영향을 후행하는 모음이 받게 됨으로 [j] 반자음이 개입시키는 현상으로 어휘로는 주로 ㅈ > ㅉ가 많다.

● 모음교체 (母音交替, ablaut)

연 변 조 선 족 자 치 주	북 한
물러나 [·] 군 ~ 주 [·] 군, 보 [·] 군, 피 [·] 군, 아 [·] 깝게 [·] 두, 찾 [·] 아 [·] 들 [·] 군 다 [·] 니 [·] 군 아 [·] 깝게 [·] 두 시 [·] 답 [·] 지 않 [·] 게	시 [·] 시 [·] 닥 [·] 거 [·] 리 [·] 는 다 [·] 지 [·] 군 다 [·] 니 [·] 군 준 [·] 비 [·] 해 [·] 가 [·] 지 [·] 구

대립모음(ㅏ/ㅑ, ㅓ/ㅕ)끼리 서로 交替되는 현상으로 방언적 영향과 모음조화의 붕괴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

● 자음의 경음화

연 변 조 선 족 자 치 주	북 한
원 [·] 쭈, 논 [·] 뚝, 문 [·] 뚝 뚜 [·] 드 [·] 렸 [·] 다, 늘 [·] 쌍 돌 [·] 쪼 [·] 각	원 [·] 쭈, 산 [·] 산 [·] 쪼 [·] 각 쪼 [·] 각 [·] 구 [·] 름 빠 [·] 젓 [·] 이 끼 [·] 웃 [·] 거 [·] 리 [·] 며

음성 강화현상의 하나로 표음식 철자법을 취하는 형태이다. 반면에 '손[·]뺨, 혼[·]살[·]이[·]발' 등의 어휘는 표음식 철자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있다. 이것은 ㄴ아래 경음표기, ㄹ아래 경음표기를 배제하고 사 이시옷을 배제하는데서 기인된 것이다. 모든 것이 노력경제나 간소화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두음 ㄹ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은 어음정책(語音政策)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 두자음(頭子音), (ㄹ·ㄴ) 재생

연변조선족자치주	북한
령민한, 랑독련습, 류랑하게, 랑식, 란, 렬(列), 류행, 로숙, 로동, 리동무, 랑옆, 류달리, 랑켄, 류창하게, 록음, 리해, 녀자, 녀름, 령감	련대, 련습, 례, 렬차, 래일, 례절, 리해, 녀려, 로동, 련못가, 령도, 려행, 랑랑히

남한은 두자음법칙이 철저히 지켜져 음절 첫소리 ㄹ이나 ㄴ을 회피하고 있다. 즉, 「라, 러, 로, 루, 르」가 두음에서 「나, 너, 노, 누, 느」로 바뀌고 「랴, 려, 료, 류, 리」 또는 「냐, 녀, 뇨, 뉴, 니」가 두음에서 「야, 여, 요, 유, 이」로 바뀌는 법칙인데, 연변과 북한에서는 의도적으로 유지, 재생시켜 쓰고있다. 더불어 남한에서는 모음아래와 ㄴ아래에서 렬 → 열로 룰 → 울로 표기되는 현상은 없다.

● 사이시의 폐지

연변조선족자치주	북한
새별, 뒤덜미, 뒤산, 아침해살, 부채살, 뒤걸음, 나룻배, 초불, 호수가, 기발, 해빛, 매돌, 뒤산 * 옛적부터 * 옛날 * 웃층	나무잎, 아래반, 해빛, 아래사람, 아침해살, 구두발, 바다가, 화불, 기발, 배머리 * 옛날

위에서처럼, 연변과 북한에서는 사이시이 전면 폐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남한에서는 두 개의 명사어가 복합될 때, 앞 음절에 받침이 없고 관형격의 의미를 가지며, 뒤 음절의 첫소리가 경음으로 발음될 때는 사이스을 삽입하여 절음효과(絶音效果)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표기법이 북한에서는 당초 [ノ]로 표시했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폐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음절도치 (音節倒置)

연 변 조 선 족 자 치 주	북 한
전이시켰읍니다 (이전) 살창(창살)	호상비관 (상호)

연변과 북한에서는 위와 같이 음절도치된 어휘들이 발견된다. 남한에서는 이러한 음절도치현상이 주로 학생어나 특수집단의 은어 또는 비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 총알 → 알총, 엉터리 → 리터엉)

북한과 연변의 교과서에 나타난 음운적 제현상을 어휘의 표기형태로 살펴본 결과 모음변이 |모음 순행동화, 모음교체, 경음화, 음절도치, 두자음(ㄱ·ㄴ) 재생등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음운현상에 따른 어휘의 표기형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표음식 표기법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동화현상이 유발되는 음운환경에서는 동화된 음가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모음변이된 것, |모음순행동화된 것등이 그것이고 자음에 있어서도

경음화된 것은 음가대로 적는 것이 많다. 이밖에도 모음교체에 의한 어형, 음절이 축약된 어형들이 많이 나타나며 사이스에 의한 절음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연변과 북한의 두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음운현상에 의한 어휘 어형의 이질화는 문법적 현상에 의한 차이보다 더 뚜렷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한의 음운조직이나 체계가 달라졌거나 음가가 변했다고는 볼 수 없다.

③ 문법적 차이로 이질화된 어휘

주로 조어법(造語法)에 있어서의 문제로 접사에 의한 파생법과 단어의 결합에 의한 합성법이 남한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보조어간에 의한 피동법과 사동법에 있어서 다소 어휘의 상이성(相異性)을 보이고 있는데 연변과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파생법과 합성법

<형용사화 전성접미사>

우리말은 어근이나 어기(語基)에 “~스럽다, ~하다, ~차다, ~롭다, ~지다, ~바다”와 같은 접미사가 붙어 형용사로 전성이 된다. 이러한 파생법에서 다음과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북한	남한
~하다	근로하다(근면-) 옹하다 옹기종기하다	가렬하다(맹렬-)	근면하다 꽁하다 옹기종기 모이다
~지다	주렁지다	주렁지다	주렁주렁 열리다
~맞다	급해맞다	급해맞다 바빠맞다	
~롭다	가파롭다 고르롭다	고르롭다	
~겹다	자랑겹다		

<동사화 전성접미사>

어근이나 어기에 접미사가 붙어 동사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다음의 파생어들은 우리(남한)에게는 낯설게 느껴지는 어형이다. 연변과 북한의 교과서에 나타나는 동사화 전성접미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북한
간질간질해나다	고파나다
그리워나다	급해나다
급해나다	바빠나다
당황해나다	
따끔따끔해나다	

연 변 조 선 족 자 치 주	북 한
뜨거워나다	
꽃무늬나다	
묵어나다	
바빠나다	
아파나다	
의아해나다	
안달어나다	
추워나다	
깜깜해나다	
애나다	애나다
미루다나니	깎다오다나니
하다나니	
관심하다	관심하다

<합성어>

두개의 실사형태소가 복합되어 쓰이는 합성어에서도 남한에는 흔히 쓰이지 않는 어휘들이 상당수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합성어를 표로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 변 조 선 족 자 치 주	북 한
툭아오르다	날아오르다
바라오르다, 장대바라오르다	뜨거워 오르다
높뛰다	터져오르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북한
날아오르다	날아지나다
쳐놓다	높뛰다
턱대다	떨쳐나서다
피더운	쓸어만지다
올리뛰다	피더운
내번지다	번저가다, 번저보다
파번지다	
떨쳐나서다	
날창	날창, 싸창
덧가위, 책가위	불무지
딱친구	돌가보
만풍년	연필방아
변강	물바퀴
속다짐	글표
식사칸	부름말
갈노전	큰소래
이불등	입말
자취소리	날음질
말치	구름노전

※ 닭알(달걀) ※ 어근을 밝혀 표기함.

● 사동법과 피동법

남한의 문법체계에서는 일반용언이 사동사 또는 피동사로 전성될 때에는 「이, 히, 리, 기」 등의 보조어간을 삽입한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이들 보조어간은 조어적(造語的) 기능으로 보

아 다소 불구적인 형태소의 성격을 띠고 있어 모든 용언에 삽입·적용될 수 없는데 반해 연변과 북한에서는 사동사와 피동사에서 남한에서보다 다양·광범위하게 삽입될 수 있는 조어력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다음에 제시하는 연변과 북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사동사와 피동사의 어례(語例)들은 남한에서 쓰이지 않는 어형으로서 주로 남한에서는 「~게하다」 「~지다」의 형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변·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피동법중 특이한 것은 피동사 어형 가운데 「(이, 히, 리, 기) 우다」형을 많이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들을 남한에서는 방언적 현상으로 보조어간 두개가 잘못 채용된 것으로 다루고 있다.

연 변 조 선 족 자 치 주	북 한
매우다(매이다)	채우다(채이다)
끌리우다, 내리우다	깔리우다, 읽히우다
물리우다, 속히우다	끌리우다, 깎이우다

④ 표기법

- 외래어표기

연 변 조 선 족 자 치 주	북 한
매트, 카드, 크레용, 피아노, 메터, 트랙또르, 레다, 뽕땅크, 범랑고뿌, 뺨스, 하이야, 샤쯔, 뺨쯔, 런닝, 빼찌카, 산데리야, 에스빠냐, 셀로판오리, 잉글랜드, 웨남, 빼오넬	노트, 벡타이, 라지오, 샤쯔, 텔레비죤, 피아노, 뺨스, 뽕, 바이얼린, 로타리, 카메라, 마이크, 트랙또르, 아빠트

위에 나타난 외래어의 표기를 살펴보면, ‘기계사람’ ‘기계의사’ ‘수정장식등’ ‘손퐁금’ ‘창문휘장’ ‘셀로판오리’ 등 번역해서 사용되는 어휘들이 있는가 하면 러시아식의 외래어 표기도 가끔 보이고 일본식 표기도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영어에 외래어가 아직까지 생명을 가지고 다량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띄어쓰기

연변의 교과서에 나타난 띄어쓰기는 북한의 현행표기법에 준하고 있다. 남한과 다른점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변 - <명사가 토없이 어울린 경우에는 하나의 대상으로 묶여지는 덩이를 단어로 띄어 쓴다>

예) 짐승들의 봄날경기대회는 끝났습니다.

남한 - <단어는 띄어쓰되, 조사는 뒷말에 붙여쓴다. 둘 이상 단어로 이룬 고유명사는 그 각 단어를 띄어 쓴다>

예) 짐승들의 봄날 경기 대회는 끝났습니다.

(2) 연변 - <사람의 성과 이름은 붙여쓴다>

남한 - <사람의 성과 이름은 띄어 쓴다>

(3) 연변 - <불완전명사는 앞의 말에 붙여쓴다>

남한 - <불완전명사는 띄어 쓴다>

(4) 연변 - <단위명사는 앞의 말에 붙여쓴다>

예) 연필 두자루, 학습장 열권

남한 - <수량을 나타내는 명수사는 띄어 쓴다>

예) 연필 두 자루, 학습장 열 권

(5) 연변 - <보조적으로 쓰인 동사나 형용사는 앞의 말에 붙

여 쓴다>

㉠ 읽고있다, 읽고싶다.

남한 -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읽고 있다, 읽고 싶다.

띄어쓰기의 차이점은 세부적인 것까지 언급하면, 너무 많기에 대략적인 것만을 구별해 보니 이상과 같았다.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띄어쓰기를 많이 하지 않고 붙여쓰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은 그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 문장 부호

문장 부호도 띄어쓰기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연변이 똑같이 쓰고 있다. 따라서 편의상 연변과 남한의 문장 부호를 표로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	한	연	변
쉼 표 (,)		반 점 (,)	
마침표 (.)		점 (.)	
쌍 점 (:)		두 점 (:)	
쌍반점 (;)		반두점 (;)	
물음표 (?)		물음표 (?)	
느낌표 (!)		느낌표 (!)	
줄 표 (—)		풀이표 (—)	
따옴표 (“ ”)		인용표 (《 》)	
밑 줄 (_)		밑줄, 밑점 (_ , ...)	

남	한	연	변
붙임표 (-)		이음표 (-)	
괄 호 ()		괄 호 ()	
숨김표 (……)		숨김표 (○○○○ 혹은 ×××)	
줄임표 (……)		줄임표 (……)	
같음표 (")		같음표 (")	
물결표 (~)		물결표 (~)	
가운뎃점 (.)		없 음	
드러냄표 (… 혹은 …)		"	
긴소리표 (̄광주, 최:고)		"	
큰소리표, 작은소리표 (ㅈ군ㅈ군 > 수군수군)		"	

위에서 보듯이 문장 부호는 명칭만 다를뿐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 차이점은 따옴표와 숨김표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숨김표는 숨기는 단어의 숫자만큼 점을 찍는데 연변은 ‘○○○’ 혹은 ‘×××’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 인용부호의 경우 남한은 따옴표 “ …… ”를 쓰는데 연변은 ≪ …… ≫를 사용한다. 인용부호의 경우, 연변과 북한이 다른점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 김일성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표 안에 김일성의 말은 활자를 더 굵고 큰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변은 모택동이나 주은래등의 말을 그렇게 큰 활자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

이상으로 세 나라의 언어사용의 실태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의 특징은 한국의 고유어를 많이 쓰고 있는 점과 함경도의 방언을 많이 쓰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호칭과 감투어의 사용, 속어와 비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북한처럼 강조되지 않고 있다. 호칭 감투어의 출현 빈도는 남한과 비슷하다.

음운에 있어서 모음변이나 |모음 순행동화, 모음교체 등은 세 나라가 비슷하게 쓰이고 있으나, 자음의 경음화, 두자음 재생, 사이스의 폐지, 음절도치 등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북한과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법적 차이로 이질화된 어휘를 살펴보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북한이 매우 비슷하게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기법상의 특징은 연변과 북한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고 남한과는 다른점이 많았다.

위의 여러면에서의 분석으로 보아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사상이나 이념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는 까닭에 어휘의 사용이 남한과 비슷하게 부드럽게 쓰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음운·문법·표기상에서는 거리와 사회체제상 가까운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표현형식

하나의 사상이나 감정을 설명적으로 쓰느냐, 문학작품 형식으로

쓰느냐, 감상적으로 쓰느냐는 전달의 방법상 많은 차이를 갖는다. 매체론 설명문, 논설문은 필자의 의도를 사실로서 전달하는데 적당한 형식이고 문학적인 글은 필자의 생각을 감동으로서 전달하는데 적당하며 감상문은 그 중간 입장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연변 교과서의 제제들이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알아보는 것 특히 남·북한과 비교해 보는 것은 새로운 시사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위해 한국 현행 국어교과서의 9장르에 따라 연변과 북한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

장 르 분 석

(단위 : %)

장르	나라 학년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3	4	5	6	계	3	4	5	6	계	2	3	6	中 1	계
1. 시		24	28	22	24	98	16	16	20	15	67	21	15	26	22	84
2. 동화·소년소설		15	10	10	13	48	37	28	8	12	85	11	3	7	6	27
3. 논 설		0	10	3	14	27	0	0	0	0	0	0	15	10	9	34
4. 전 기		9	10	15	11	45	19	25	32	31	107	6	15	7	9	37
5. 설 명		9	14	15	10	48	6	6	8	12	32	8	28	0	13	49
6. 기 행		0	5	10	8	23	0	0	0	4	4	3	3	0	6	12
7. 희 곡		5	5	5	8	23	0	0	8	0	8	0	3	4	0	7
8. 일 기·편 지		12	8	12	6	38	0	3	4	0	7	0	6	10	9	25
9. 감 상·수 필		26	10	8	6	50	22	22	20	26	90	51	12	36	26	125
총 계		100	100	100	100	400	100	100	100	100	400	100	100	100	100	400

<표 4>에 나타난 연변 교과서의 외형상의 특징은 남한과 북한에 비해 전기문(傳記文)에 편중 현상을 보이며, 논설문이 한편도 없는 것이 특색이다. 이에 비해 남한은 시(詩)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북한은 감상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몇개 항목을 중심으로 그 성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기(傳記)

연변 교과서의 전기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들을 국적 및 전공분야로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전기에 나타난 인물

나라 나라사람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한 국 인	오성과 온달과 유관순 최무선 한석봉 조온(재상)	한음 윤봉길 강공주 김정호 강감찬 안중근 세종대왕 이순신	한석봉	김일성(7편) 강반석 (김일성모, 2편) 김형직 (김일성부, 2편) 황순복 (용감한 유격대원) 강영호 (용감한 유격대원)	
중 국 인	손문(정치사상가)		모택동 (정치사상가, 3편) 주은래 (정치사상가, 3편)		

나라 나라사람	남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북 한
중국인		주 덕(장군, 2편) 류호란(여자유격대) 도소문(유격대) 라성교(") 황계광(") 조일만(") 장 형(과학자) 조 충(학 자) 섭 이(음악가) 리시진(의 사) 동제주(생물학자) 왕약비, 서문표	
영국인		와 트 } 다아윈 } (과학자) 뉴우톤 }	
미국인	에디슨(과학자) 헬렌켈러	에디슨(과학자)	
소련인		레닌(정치사상가, 2편)	
독일인		엘리히(과학자)	
프랑스인	파브르(과학자)		

위의 표에서 보면, 남한은 정치, 사상, 과학, 예술등 여러 분야의 인물을 골고루 다루고 있어 전기의 인물 선정 기준이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김일성이 7편,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이 2편,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이 2편 나와 김일성 일가가

도합 11편으로 전기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기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도 유격대원이며, 김일성과 그의 가족 전기가 모두 공산혁명 투쟁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전기는 투쟁적 인물만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투쟁적인 한국인만을 전기의 인물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폐쇄적인 그들의 의식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하여 연변의 인물 선정 기준은 남한과 동질성을 갖는다. 모택동과 주은래가 각각 3편씩 있으나, 음악가, 과학자, 의사, 생물학자 등이 골고루 선정되어 있으며, 중국인외에 미국인, 영국인, 소련인, 독일인등 국적도 골고루 선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인이 20회 나오는데 비해 한국인은 1회밖에 나오지 않는다. 한국의 위인중 특히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선정 않는 점은 그들이 정치적인 인물이며, 북한의 날조된 역사관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석봉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비 정치적인 인물, 가난한 인물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② 감상문(感想文)

두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것은 감상문이다. 감상문은 백분율로 보면 북한이 우위이며, 한국은 비율이 낮다. 남한은 교과서 구성이 장르별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모든 장르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북한과 연변이 감상문에 치중돼 있는 것은 단원 구성이 주제별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한의 경우 감상문의 형식으로 쓰여진 글들은 대개가 김일성 찬양 및 공산사상 주입을 위한 글이었다. 북한은 ‘김일성 교시’를 가르치기 위해 감상문이라는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변의 경우는 생활 정보적인 감상문이 주류를 이루고 남한의 감상문은 정서적인 느낌의 글들이었다.

③ 동화 · 우화 · 소년소설

연변 교과서에는 동화, 우화, 소년소설 즉, 이야기 형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나 남한보다 월등히 높고 연변 교과서의 22%에 해당된다. 동화, 우화, 소년소설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동화의 내용분석

나라 구별	남 한	연 변	북 한
우 화	소가 된 게으름장이 (5)	돌배 탄 이야기, 아름다운 수탉, 승냥이와 어린양, 승냥이의 이야기 (3), 락타와 양, 새끼 고양이와 쥐, 범을 등에 업은 여우 (4), 곰과 개미의 싸움 함정에 빠진 호랑이 (5) 박쥐의 재간, 동곽선생과 승냥이 (6)	돌배 탄 이야기 (2), 피 많은 장수와 힘센 장수 (2), 놀고 먹던 꿀꿀이 (3)
동 화	달과 박, 훌륭한 원님 나무야 누워서 자라 다섯개의 완두콩 바위꽃과 아기별 (3)	나뭇꾼과 도끼, 씨앗의 여행, 나귀 잃은 이야기 (3) 흥부놀부, 규율을 지키지 않은 새끼기러기, 노을아기	빵장수 소년, 나비쫓던 수탉 (2), 다시날은 박새 (3), 고무신

나라 구별	남 한	연 변	북 한
동 화	토끼, 달님이야기, 부 와 제비(4), 매미(5) 송아지(6)	산림할아버지(4), 새로운 별(5), 할아버지, 레닌동 지와 보초병(6), 목천이불, 혹뎨이야기(6)	파로왕의 편지(6)
소 년 소 설	바람을 파는 소년(4) 어린 목동, 돌이와 송 아지(5), 심청 이야기, 기사 임명식, 마지막 수업(6)	슬기로운 소년(4)	승냥이 미국놈, 남녀 의 인순이(2), 물동이(3), 땅크를 막 아선 소년, 고지의 영 웅들, 담요, 아버지 소식, 을가강에서의 남시질(중 1)

※ ()안의 숫자는 학년표시

이상에서 볼 때, 연변의 우화는 주로 강한 교훈성을 내포한 이
솝식의 우화이다. 강한 암시성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우화의 형식이
주로 차용된 연변의 교과서는 강한 주입성으로 일관된 북한의 교
과서와는 이질성을 갖는다.

연변의 동화는 <홍부 갈부> <혹 뎨 이야기> <나뭇군과 토끼>
등 전래동화가 있는 반면에 <레닌동지와 보초병> <목천 이불>
<노을 이야기> 등의 이념동화도 있고, <새로운 별>이라는 공상
과학동화도 있고, <할아버지>와 같은 순수동화도 있다. 이런 현상
은 연변의 아동문학이 아직까지는 한국의 전래문학과 순수문학의
영토에서 아주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 이에 비해
북한 교과서에는 전래동화가 한편도 없으며, 우화 3편도 공산 이
념을 주제로 각색되어 있는 형편이다.

통털어 볼 때, 연변의 한인들은 이야기 문학을 즐기며, 그 중에서도 특히 허구적인 이야기, 상징적인 이야기를 더 즐기고 있다고 본다.

④ 시(詩)

연변 교과서속의 시는 숫자상으로는 남한의 24%, 북한의 22% 보다는 낮다. 그러나 남·북한과 비교해 볼 때, 형식과 내용면에서 특징을 갖는다. 남·북한 및 연변의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시의 형식과 제목을 제시해 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시의 형식과 내용

나라 구별	남 한	연변조선국자치주	북 한
형 식	7.5조 (F) 3.4조 자유시 (正F)	7.5조 (一) 3.4조 (T) 자유시 (一)	7.5조 (正F) 자유시 (一)
제 목	① 봄소식 ② 꽃씨 ③ 아기와 나비 ④ 시냇물 ⑤ 이슬 ⑥ 달팽이 ⑦ 바람 ⑧ 보름달 ⑨ 꽃사슴 ⑩ 누집아 두집아 ⑪ 창	① 학교로 가요 ② 소쩍새 ③ 수양버들 아래에서 ④ 첫눈	① 김일성장군의 노래 ② 군사놀이 ③ 우리는 아동단원 ④ 장군님께서 오신다 ⑤ 아버지 원수님의 품속에 안길래요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형식면에서 볼 때, 연변 교과서의 시의 형식은 남·북한 중간에 놓여있다. 즉, 남한이 우리 고유의 가락인 민요의 3.4조와 창가(唱歌)의 노래조인 7.5조를 가지고는 있으나 자유시가 가장 많은 반면에, 북한은 창가조(唱歌調)의 7.5조가 절대적이고 민요조인 3.4조는 없다. 그러나 연변은 7.5조와 3.4조, 자유시가 골고루 실려 있다.

내용면에서 보면, 남한이 자연예찬적인데 비해 북한은 김일성 찬양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공산 후비대 양성단인 ‘아동단 찬양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연변은 순수시와 이념시가 반씩 섞여 있다.

장르를 통한 표현형식의 전체적인 특징은 연변의 국어교과서는 전기문을 주로 쓰고 있는데, 전기는 정치적 인물을 많이 다루고 있는 점은 북한과 비슷하나 인물 선정에 있어서 세계 여러나라에 각 분야의 인물을 골고루 실고 있는 점은 남한과 비슷하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인물에 대해서는 관망의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 또 그들은 생활적인 감상문과 허구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 문학을 즐기고 있다.

Ⅳ. 맺음말 및 제언

이상으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전일제 소학교 국어교과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변의 국어교과서는 계몽을 위한 읽기자료 위주로 꾸며져 있다. 이것은 북한의 사상주입을 위주로 한 세뇌형 교과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2. 주제면에서는 창의성, 탐구성을 중심으로 꾸며졌으며, 이것은 남한과 비슷한 현상이며, 북한의 사상적 주제가 많은 것과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다.

3. 가치관에서는 유교적 겸양지덕이 고수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서구화된 남한보다 더 전통적이다. 또한 북한의 전통적 가치관의 배척과는 상반된다.

4. 겸양지덕, 자연예찬, 정직, 효사상(孝思想) 등 전통적 가치관이 미화되고 있다. 이것은 남한과 비슷하며 북한과는 다르다.

5. 국가를 위한 희생, 가난이 미화되고 생명경시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북한과 동일하다.

6. 종교적 색채는 없으나 하느님, 선녀, 신령님, 마귀, 도깨비 등의 전래신앙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 점은 북한과는 전혀 다른 전통성을 지닌 것이다.

7. 어휘의 사용실태는 고어, 고유어가 많은데, 이것은 북한과 비슷하며, 함경방언, 평양방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속어, 비어, 호칭어, 감투어를 쓰고 있으나 북한보다는 적다.

8. 음운현상에서 자음의 경음화, 두자음재생, 사이스폐지, 음절도치 현상은 북한과 동일하다.

9. 교과서의 기술형식에서 전기문을 통해 모범 인간상 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대상인물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10. 문학 단원은 주로 전래동화와 창작동화, 우화로 꾸며져 있으며, 3.4 조의 시가 많다. 이것은 그들이 이야기 형식을 즐기며, 3.4 조의 한국의 전통민요의 가락을 즐기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상으로 볼 때,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인들은 표면으로 나타나는 이념상의 노선이나 언어 현실면에서는 북한과 동질성을 갖고 있으나 가치관이나 정신문화적인 면에서는 남한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된다.

1. 현존하는 연변의 한인들은 북한과 사상체제 및 언어현실이 동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북한과 동질성을 느낄 것이다.

2. 그러나, 현존하는 연변의 한인들은 전통관, 도덕관, 가족관 등에서 남한과 정신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전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연변의 한인들과 정신적 전이현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신앙, 전래동화를 통한 전통적 일체감, 반일 감정을 통한 민족적 일체감, 유교적 가치관을 통한 철학적 일체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연구 등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Korean textbooks used by the primary school students of Yeon-byeon Chosun Independent State located in the Republic of China with those used by the primary school stud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The study result can be observed briefly like these;

1st, the primary school Korean textbooks of Yeon-byeon Cho-sun Independent State are reading materials that emphasize reading comprehension.

2nd, the textbooks consist of scientific contents that help bring up inquiring and creative abilities, which seems to be the reflection of science-oriented principles of Chinese education.

The specified and detailed contents of the above-mentioned result are as follows;

1. Yeon-byeon Cho-sun Korean textbooks are reading materials for enlightenment, and in this respect, they differ greatly from the Korean textbooks of North Korea that are speaking materials for ideology instilment.
2. The main themes of Yeon-byeon Cho-sun textbooks are creativity and inquiring attitude, which is a phe-

nomenon similar with that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different from that in North Korea where ideological themes are over emphasized.

3. In regard to view of values, confucian modesty is highly regard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Yeon-byeon Cho-sun Korean textbooks are more traditional than those of more modernized Korea, and distinguished from those of North Korea where traditional view of values is disregarded and rejected.
4. In Yeon-byeon Cho-sun Korean textbooks, traditional values such as modesty, nature worship, honesty and filial piety are praised and adored, which is familiar to Korea and unfamiliar to North Korea.
5. In Yeon-byeon Cho-sun Korea textbooks, one's sacrifice for one's own country and poverty itself are embellished, which is the same as in North Korea.
6. Yeon-byeon Cho-sun Korea textbooks show no religious shade. But, in them such beings of our traditional religion as the Lord, fairies, gods, devils and hobgoblins appear. This is the result of keeping traditions, which is essentially distinguished from North Korean attitude against tradition.
7. As for vocabularies, many archaic and proper words are seen, which is a similar phenomenon with that

of North Korea. And it is noticeable that Ham-Kyeong and Pyeong-yang dialects are used. Sometimes slangs, vulgar terms, designations and high-sounding titles appear but are found less in North Korean textbooks.

8. In the level of phonology, such phenomena as consonant strengthening, initial consonant regeneration, disuse of inserted ' ' and syllable inversion are found, which is the same as in North Korea.
9. As for genre, biography is often presented. Through biographies images of ideal men are introduced and in most cases, the ideal man in Chinese.
10. Literature parts are mainly composed of traditional tales, creative tales, fables and poems in 3.4 meter. From this, it is supposed that Yeon-byeon Cho-sun people enjoy story-telling and 3.4 meter, the meter of Korean traditional ballads.

From the above facts, we can recognize that in the ideological line and language use Yeon-byeon Cho-sun people have qualities similar with those of North Koreans, but in view of values and cultural, spiritual aspects they show an inclination toward South Koreans.

This recognition helps us draw such suggestions as follows;

1. Yeon-byeon Cho-sun people, at first, may feel sense of solidarity with North Koreans because of the similarity in ideological traits and language use.
2. After a certain time, Yeon-byeon Cho-sun people will experience mental transference toward South Koreans because fundamentally they share something common with South Koreans in view of tradition, morality and family.
3. To corroborate and accelerate such mental transference, efforts should be made to formalize sense of traditional solidarity by folk beliefs and traditional tales, sense of racial solidarity by anti-Japanese feeling, and sense of philosophical or spiritual solidarity by confucian view of values.
4. Co-operative studies to get over distinctive features in language use should be carried out.

참 고 문 헌

- 金英培, 북한 방언에 대한 고찰, 북한연구소, 1979.
- 金學俊, 분단과 통일의 민족주의, 소리, 1983.
- 박관수의, 북한 대사전, 공산권문제 연구소, 1974.
- 박용헌, 북한의 교과서 내용 분석연구, 국토통일원, 1972
북한 연구소, 북한총람, 1983.
문교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1981.
- 孫仁鐵, 한국인의 가치관, 文音社, 1984.
- 全在昊, 洪思滿, 남·북한어 어휘에 대한 형태론적, 의미론적 비교연구, 국토통일원, 1981.
- 중국연구소, 중공 요람, 裕林文化社, 1975.
- 자유평론사, '82 남·북한 비교분석, 1982.
-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한국인의 가치관, 一念, 1982.
- 趙圭高, 북한어 '문화어'에 대한 연구, 영남대 통일문제 연구소, 1979.
- 崔光石(감수), 북한용어 대백과, 국민 방첩 연구소, 1976.
- 崔學根, 국어 방언 사전, 1979.
- 한중하, 한국학생의 지적, 정의적 발달 특성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2.
- 韓昇洲외, 中共의 現實, 고대 아세아문제 연구소, 1981.
- 洪妍淑, 남·북대화와 언어격차, 영남대 통일문제 연구소, 1973.
- 로버트 C, 노우스; 모스크우와 중국 공산주의(차두형 옮김), 문교부,

1962.

- 에릭 R, 울프 ; 20세기 농민전쟁(곽은수 옮김), 形成社, 1984.
- 에리히 프롬 ; 사회주의 인간론(사계절 번역실역), 사계절, 1982.
- W·G 하일랜트외 ; 4대강국과 한반도, (공동번역실역), 이삭, 1984.
- Jeam Chesneaux 외 ; La Chine (신영준 옮김), 까치, 1981.
- 폭스 버터필드 ; 中共(太仁善, 洪東善공역) 凡洋社, 1982.
- 해리슨 솔즈베리 ; 中共기행(장원수 옮김) 과학 인간사, 1979.
- A, Doak Barnett ;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중공의 도전, 신영준 옮김), 홍성신서, 1983.
- Raymond Williams ; Maxism and Literafure (이일환역, 이념과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82.
- 우노 시게야끼 ; 中共 공산당사(김정화 옮김), 일월서각, 1984.
- 姫田光義외 ; 中國 近現代史(일월서각 편집부 옮김), 일월서각, 1984.
- G .H . Mead, Mind, Self and Society, 1984.

教科書を 통해 본 韓國·中共·北韓의
國民精神教育 比較研究

研究責任者 남궁 달 화
(哲博, 韓國教育開發院
道德教育研究室長)

차 례

I . 머 리 말	85
A . 연구의 필요성	85
B . 연구의 목적	86
C . 연구의 방법	86
D . 연구의 제한점	86
II . 교과서의 개괄적 내용 및 특징의 분석	88
A . 중 공	89
1 . 유물론적 세계관	89
a . 관념론적 세계관의 비판	90
b .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비판	94
2 . 사회주의	97
3 . 노동과 과학의 사랑	106
4 . 조국, 인민, 집단, 중국공산당의 사랑	104
5 . 사상수양 - 공산주의적 도덕품성 배양	110
B . 북 한	118
1 . 김 일 성	118
a . 어린시절과 그의 족보	118
b . 독립운동과 조국해방	119
c . 주체사상	120

d . 어버이와 아들 딸	120
e . 민족의 태양	122
2 . 사회주의 국가	124
a . 자본주의 비판	126
b . 선거 및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	127
c . 노동	128
d . 집단주의	129
3 . 조선로동당	130
4 . 반미사상과 남조선 인민	132
5 .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135
C . 한국	137
a . 개인생활	137
b . 사회생활	139
c . 국가생활	141
d . 통일교육	143
Ⅲ . 비교 및 논의	146
A . 사상교육	146
1 . 이념교육	146
2 . 집단주의 및 애국주의	154
3 . 노동	158
4 . 당	159

5. 통일정책	161
B. 왜곡된 내용 - 정치·경제체제를 중심으로	162
C. 도덕교육	168
IV. 맺음말	174
참고문헌	178

I. 머 리 말

A. 연구의 필요성

모든 국가는 국민들의 건전한 사고의 형성과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는 삶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국민들이 '국민으로서' 가져야할 자세와, 하여야할 일을 중심으로 국민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지금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북한과 종전 아닌 휴전 상태에서 대치하여 있고, 서로는 적대 관계에서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은 제 2의 6·25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북한을 도와 한반도의 분단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인 중공도 우리와 이데올로기를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의 후원자로 군림하면서 한반도의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이다.

오늘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 정신 교육의 성공 여부는 국민생활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운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신적 자세의 여하는 곧 그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국민의 자세가 정신 교육으로 무장화 되어 있지 못하다면 설사 기왕에 이루어놓은 국가의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임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정신 교육의 실시를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로 우리와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북한과 중공에서 사상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국민 정신 교육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국민 정신 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에 본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다.

B. 연구의 목적

앞에서 밝힌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
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공의 공산주의 교육으로서의 사상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밝힌다.
2. 북한의 '김일성주의' 교육으로서의 사상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밝힌다.
3. 중공과 북한의 사상 교육과 한국의 도덕·국민 윤리 교육과
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의 국민 정신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
한다.

C. 연구의 방법

중공과 북한, 그리고 한국의 교과서를 통해 비교 분석하는 문
헌 연구로 이루어졌다.

D.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자료가 불충분했다.
2. 중공의 자료는 중공의 길림성 한인 교포가 사용하는 「한글판 교과서」를* 사용했다.
3. 북한의 교과서는 일본의 조총련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사용했다.
4. 북한의 자료는 70년대 초반의 것이었다.

* 중공의 길림성에는 우리 교포가 약 150여만 살고 있다고 하는데 한인 학교에서는 이들을 위한 교과서로 한글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한가지 밝히고 싶은 것은 비록 교과서가 한글로 씌여졌기는 하나 '내용'에 있어서는 단 한군데서도 한국 또는 북한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한 한글판 교과서의 내용이나 다른 지역의 중공에서 사용하는 중국어판 교과서의 내용이 같은 것으로 짐작된다.

II. 교과서의 개괄적 내용 및 특징의 분석

중공의 교육내용은 우리 나라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그간에 북한의 실상과 교육내용의 소개는 간혹 있어 왔다. 하지만 그 내용 소개의 형식이 대부분 간접적인 인용 또는 표현으로 이루어진 실정이다. 간접적인 인용 또는 표현은 그것이 주는 인상의 정도가 낮고 실감이 적다. 그러므로 극히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나 그 내용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도 우리 국민 사이에 있어 왔음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본 章에서는 가능한 한 중공과 북한의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참고문헌을 표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기에 힘썼다. 또한 그들의 사상 교육의 실상을 직접 읽음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사상 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졸렬하고 비논리적이며 학문적인 수준에 미흡한가를 독자 스스로의 안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에 힘써 가능한 한 원문을 살리어 전개했다. 특히 중공의 사상 교육의 실상이 우리 나라에게 소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북한이나 우리의 것보다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도덕·국민 윤리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은 우리 국민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중공이나 북한의 그것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 주제 영역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A. 중 공

1. 유물론적 세계관

맑스와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변증법적 유물론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한 인정이다. 레닌에 의하면 “유물론의 기본 전제는 외부 세계를 인정하는 데 있다. 사물이 우리의 의식 밖에,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객관 세계는, 그것이 자연계이든 사회이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세계는 물질적 세계이며 세계는 물질로 통일되어 있는 데 그것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서로 轉化하고 있는 무수한 물질 형태의 통일체이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은 물질적인 것이며 물질의 여러가지 표현 형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물질 세계는 인간의 주관적 의식 밖에 독립하여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로서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든 않든간에 존재하며, 또한 부단히 운동하고 변화한다. 이러한 운동과 변화는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칙에 따라 운동·변화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힘에 의해 주동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변화하고 운동하고 있는 객관세계를 인식할 수 있고 또한 객관사물의 발전법칙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객관세계를 발전법칙에 따라 능히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국주의·자본주의는 멸망에로 나아가고 있으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²⁾

주 1)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3.

2)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4.

객관세계에는 운동하는 물질 이외에는 그리고 천차만별의 무수한 물질 형태 이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질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므로 물질세계 또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는 인간의 주관적 정신 또는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객관적 실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과 감각은 물질에 의존하는 것으로 그것은 물질의 산물이며 물질의 반영이다. 소위 '하나님' '신령' 혹은 '초자연적인 힘'이 세계의 만물을 좌우지 한다고 여기는 것은 무지한 종교 미신의 황당한 논조라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세계의 본성을 유물론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a. 관념론적 세계관의 비판

유물론적 세계관을 강조할 뿐 아니라 '옳은' 철학으로 유도하기 위해 관념론적 철학 사상을 비판하고 그릇된 것으로 인정하고 또한 관념론적 철학 자체의 근거를 부인하고 있다. 「이야기 속의 철학」에서는 관념론을 주관적 관념론과 객관적 관념론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또한 비판하고 있다. 먼저 주관적 관념론자인 18 C의 영국의 Berkeley와 중국의 왕양명, 육상산등을 반동적 철학자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Berkeley를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 관념론의 철학은 세계의 본성을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의식 또는 사람의 감각이며 세계는 정신·의식 또는 감각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세계의 온갖 사물은 모두 정신·의식 또는 감각인 것으로 정신·의식 또는 감각이 없으면 세계도 없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감각·정신·의식만이 유

일하게 진실되고 모든 존재의 토대로서 존재란 감각된 것이고, 객관사물이란 감각의 복합체이다. 예컨대, 책상위의 사과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감각하였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는 나의 감각의 산물이다. 왕 양명도 “마음 밖에는 사물이 없다”고 했고³⁾, 육 상산도 “나의 마음이 곧 우주이고 우주가 곧 나의 마음이다. 우주 만물은 모두 나의 마음 속의 산물이며 모든 것은 본래 나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⁴⁾ 그런데 유물론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감각이란 객관사물에 대한 인간의 감각기관에 의한 반영으로 사과가 인간에게 감각된 것이지 인간의 감각이 사과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주관적 관념론은 唯我論이고 황당한 이론이다. 관념론은 유물론을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이론으로 반동적 낙후 세력들이 사용하는 이론이며, 사상적 ‘원썩’이고 사상 영역의 大敵으로 침략 폭행을 위해 존재하는 파산주의, 제국주의의 철학이다.

한편 Platon, Hegel, 주 희를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관념론, 즉 세계는 독립적이고 초자연적인 객관적 정신의 산물이라는 세계관을 역시 부인한다. Platon은 세계를 관념세계와 물질세계로 나누고 관념세계는 진실하게 존재하는 세계이고 물질세계는 관념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Hegel은 세계의 본질은 절대적 관념으로 자연이나 사회는 절대적 관념의 산물 또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한편 주

주 3)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13.

4)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13.

회는 “태극은 오직 만물의 理일 뿐이며, 理는 사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였으며, 천지가 있기 전에 필경 이 理가 먼저 있었고, 이 理가 있는 후에야 천지가 있었으며 이 理가 없었더라면 천지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⁵⁾

그러나 객관적 관념론 역시 “날조해 낸 물건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⁶⁾ 즉 관념세계니 절대관념이니 理니 하는 것은 신·하나님의 대명사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황설’로서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레닌은 “관념론은 면밀하고 세련된 신앙론의 형태”⁷⁾로서 반동학자들이 자본주의 제도의 멸망을 ‘만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관념론을 ‘진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같은 관념론이 생겨난 이유는 인간의 무지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즉 자연 현상에 대한 인간의 합리적 해석의 부족과 초자연적인 힘의 존재와 이를 숭배하는 원시종교에 의해, 그리고 착취계급 사회에서 관념론을 이용하여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하기 위해 관념론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관념론은 진리를 두려워하는 반동계급이 是非를 전도하여 반동통치를 위한 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혁명과 사업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두뇌 속의 관념론적 관점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관념론적 반동 철학을 반대”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⁸⁾ 세계의 객관성

주5)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p.16~17.

6)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17.

7)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17.

8)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20.

과 물질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념론은 완전히 사실에 배치되는 ‘황당’한 것으로 인간에게 진리를 밝혀 주기는 커녕 오히려 인간을 기로에로 이끌어 정확히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도록 인도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⁹⁾

현대과학에 의해 변증법적 유물론은 그것이 과학적이고 진리임을 실증하였고 동시에 관념론은 황당한 이론임을 실증하였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천체를 비롯한 지구는 물론 생물체도 화학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계의 본성은 정신이 아닌 물질의 통일체라는 것이다. 지구는 10억년 이상이 되었으나 인류는 몇천만년 밖에 되지 않았으니 인간의 정신·의식·감각이 있기 전에 물질이 먼저 존재하였고 그러므로 물질은 관념론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정신의 산물이 아니며,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고대생물은 현대생물로, 저등동물은 고등동물로, 원숭이는 인간으로 진화되었고, Parlor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두뇌의 산물이며, 감각은 외계의 자극을 받아 생기며, 눈·코·혀·귀등이 물질인 것처럼 인간의 의식·감각도 물질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연과학이 물질운동의 법칙을 제시하고, 사회과학이 사회현상의 운동법칙을 제시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세계는 인식할 수 있고 또 객관적 물질세계는 일정한 운동법칙과 발전 법칙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 9)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6.

이상과 같은 것에 근거해서 볼 때 변증법적 유물론은 과학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은 진리이나 관념론은 반과학적일 뿐 아니라 황당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유물론은 사회 및 자연을 개조할 수 있는 로동계급정당의 세계관이고, 관념론은 반과학적, 반동적인 낙후한 세계관이라는 것이다.

b.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비판

유물론을 지지하기 위해 형이상학적 세계관 역시 부인하고 나선다. 형이상학이란 인간이 구체적으로 감촉할 수 있는 사물을 초월한 추상적 도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물의 일면만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형이상학자들은 “사물의 본질과 현상을 서로 고립시키고 갈라 놓는다. 형이상학자들은 본질은 사물 자체 속에 존재하는 데 인간은 사물의 외부 현상을 인식할 수 있을 뿐 사물 내부의 본질은 절대 인식할 수 없으며 사물의 본질과 현상 사이에는 인간의 인식으로서 뛰어넘을 수 없는 도랑이 가로 놓여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형이상학이라고 서술하고 있다.¹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속의 철학」에서 서술하고 있는 형이상학의 개념풀이를 소개하면 “세계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서로 고립된 각종 사물과 현상의 ‘집적물’이며,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에 있으며 사물의 운동과 발전의 근원은 외부적 힘의 추동에 있으며 사물의 운동 변화는 다만 위치의 변화와 수량의 증감일 뿐 질적 변화는 없는 것”이 형이상학의 세계관이라고 서술

주 10)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p.33~34.

하고 있다.¹¹⁾ 즉 세계의 만물은 변화없이 영원히 원래의 모양대로 있으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입장이 형이상학의 세계관이라고 서술하면서 이와 같은 세계관은 그릇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런가 하면 맑스의 유물론적 변증법이야말로 참된 철학으로 자연과학의 발전과 함께 형이상학은 비과학적임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맑스의 변증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맑스의 변증법은 세계는 연관과 상호작용 속에 있고, 부단히 운동하며 변화할 뿐 아니라 혁신하는 상태로서 세계의 발전은 하나의 과정이다. 세계의 각종 사물과 현상은 또한 모두 내부 모순을 거친다는 것이다. 즉 사물과 현상에는 쇠퇴하는 것과 발전하는 것이 있고, 쇠퇴하는 것과 발전해 가는 것 간의 투쟁이 양적 변화로부터 질적 변화에로 이르는 사물의 운동을 일으키며 사물의 발전 변화를 추동한다. 이런 모순 투쟁이 사물을 운동, 발전하게 하는 근원으로 변증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변증법은 자연계의 사물과 현상의 발전 법칙을 반영할 뿐 아니라 또한 사회의 발전 법칙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원시사회는 노예사회로, 노예사회는 봉건사회로, 봉건사회는 자본주의사회로,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무산계급 혁명을 거쳐 사회주의사회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자산계급 사회의 자본주의자들은 썩어 빠진 자본주의적 생산 관

주 11)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p.33~34.

계를 애써 수호하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반동적’ 사상이지만, 무산계급의 사회주의 사회는 생산력의 발전과 사회진보의 요구를 대표하여 혁명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자본주의 제도를 소멸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계의 발전과정과 사회발전의 역사는 세계의 모든 사물이 다 변증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는 것이다.

형이상학은 자산계급의 세계관으로 통치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이용되고 대중 혁명 운동을 파괴하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현시대의 반동 세력의 사상적 도구라는 것이다. 형이상학은 객관세계의 진실한 정황에 부합되지 않는 착오적 오류적 철학으로 형이상학적 방법으로 사업을 지도하면 기필코 실패한다는 것이다. “오직 맑스의 유물론적 변증법만이 유일하게 철저하며 진정하게 과학적인 변증법이다. 우리는 모든 사업 중에서 반드시 변증법적 방법을 준수하고 형이상학을 단호히 제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이상학 또는 관념론은 사회발전의 법칙을 부인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위해 변호하고 혁명군중의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착취계급을 위해 봉사하는 반동적 사상이라고 한다. 한편 변증법적 유물론 사상인 맑스주의 세계관은 우리의 이 시대에 있어서 오직 “완전히 정확한 세계관”이고 공산당 또는 노동계급의 세계관으로 세계를 개조하는 방법과 무기이고, 과학적 공산주의 학설의 이론적 기초이고, 노동계급정당의 전략·

주 12)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39.

책략·각종 정책의 이론적 기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 무기이기 때문에 맑스주의 철학의 지도를 떠나면 혁명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자연·사회 현상 가운데서 방향이 빗나가기를 바라지 않으려면, 자신을 쓸데없이 몰아치는 맹목적인 사무주의자로 되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를 식견이 좁고 원견이 없는 정치상의 '용숙한' 사람으로 되게 하지 않으려면, 사상상·사업상·정치상에서 엄청난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하여 힘을 많이 기여하려 다짐한다면 “맑스주의 철학을 학습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두뇌를 무장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

2. 사회주의

「사상 품성과」 제 1권 소학교 5학년 교재 제 4과에서는 “사회주의는 좋다”는 소단원이 있다. 즉 “우리나라는 무산계급 독재의 사회주의 나라이다.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은 우리 나라를 빈궁하고 낙후한 반식민지·반봉건 사회에서 벗어나 번영 부강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였다. 우리 나라 인민들은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체험을 통하여 사회주의가 좋다는 진리를 똑똑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⁴⁾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 제도 보다 좋은 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주 13) 「이야기 속의 철학」, 1980, p.198.

14) 「사상 품성과」 제 1권, 소학교 5학년용, 1982, p.77.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 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국가를 관리하는 최고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제도는 자산계급 독재를 실시하여 국가는 소수 자산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고 무산계급과 근로 인민을 억압하는 도구로서 자산계급이 국가 정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무산계급과 근로 인민은 민주주의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없는 피착취·피압박의 지위에 처하여 있으므로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이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산계급에 대한 자산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은 무산계급이 자산계급과 투쟁하여 자본주의 제도를 청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⁵⁾ 또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사회적 소유이므로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로서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 받는 원칙을 관철하는 합리적인 분배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경제가 사적 소유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토지·공장·광산등의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는 근로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어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이다. 즉 자본가들은 놀고 먹으나 많은 근로 인민들은 거대한 사회적 부를 창조하면서도 도리어 착취 당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이윤만 추구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물건만을 애써 생산하므로 생산이 맹목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상품이 팔리지 않아 적치되며, 따라서 많은 공장들이 문을

주 15) 「사상 품성과」 제 1권 소학교 5학년용, 1982, p.78.

달고 노동자들은 실적을 당하여 소위, 자본주의 경제 공황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생산은 파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제도 자체로서는 이같은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⁶⁾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이 사리 사욕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고 잔인 무도하고 서로 기만하는 나쁜 기풍들이 휩싸여 있는 나머지 살인·약탈·마약 사용과 같은 범죄자와 타락 분자를 빚어내게 하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조금도 이기적이 아니고 오로지 남을 위하는 공산주의적 기풍으로 새 세대를 키워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볼 때 사회주의 제도는 자본주의 제도보다 비할 바 없이 우월한 제도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지금의 중공이 “빈궁하고 낙후한” 측면만 보고 자기가 태어난 시기를 원망하며 ‘지금은 자본주의가 좋고 앞으로는 사회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일부의 청년들이 ‘자본주의가 지금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화한 자본주의의 표면 현상에 미혹되어 그 내막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¹⁷⁾ 즉 자본주의 사회의 거리에는 수많은 승용차들이 오가고 있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 보면 에너지 원천의 위기가 날로 격화되고,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높은 편이지만 소득세를 내야하고 비싼 집세를 비롯해 치료비, 학비를 내야하며 또한 실업의 위험성이 그림자 처럼 따라 다니고, 인간관계는 착취와 피착취 관계라는 것이다.

주16) 「사상 품성과」 제1권, 소학교 5학년용, 1982, pp.78~80.

17) 「사상 품성과」 제1권, 소학교 5학년용, 1982, p.71.

예컨대, 최근의 미국 사회에서 범죄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 평균 2분에 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할 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의 청년들은 사회의 전도가 암담함을 느낀 나머지 비관 실망하여 마약을 사용하는 현상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지금은 자본주의가 좋다’는 식의 생각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의료·병원 제도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사회인 중공에서는 치료비가 안들지만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가정 경제 파탄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아가 생기면 구조금, 식량, 집 그리고 옷 뿐 아니라 아프면 병원에서 무료 치료를 해 주는 등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고아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지만 미국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아나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 100만명 이상이나 되는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공산주의야말로 인류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이고 인류 사회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공산주의에로 발전하는 데 이것은 어떠한 반동 세력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사회주의 제도는 또한 성실한 품성을 배양할 수 있는 훌륭한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으므로 착취계급 사회에서 “공부하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 입고 잘 먹는 것만 알고 아무런 ‘지향’없이 살아가는 착취계급의 자녀들을 따라 배우지 말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⁸⁾

주 18) 「청소년 수양」 하권,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 1982, p.100.

3. 노동과 과학의 사랑

생산력의 증대에 의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과 과학 교육에의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노동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소학교 4학년용 「사상 품성과」 제1권 제8과에서는 “로동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는 제목으로, 소학교 5학년용 「사상 품성과」 제1권 제6과에서는 “로동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인 「청소년 수양」 상권 제5과에서도 “로동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노동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즉 “로동은 로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해야 할 영예로운 일이므로 로동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중화 민족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훌륭한 품성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로동을 사랑하는 사상과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것은 사상 품성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⁹⁾

노동을 사랑하는 것은 미덕으로 식량·집·옷 그리고 과학기술 등은 모두 인민들의 노동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노동은 사회의 물질적 부를 창조할 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창조하는 만큼 인류는 노동을 떠나서는 생존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직책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은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한 구별이 없고 다만 ‘분공’이 다를 뿐이라며 행복한 생활은 노동으로 바뀌어 온

주 19)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 1982, p.57.

것이며 노동이 없으면 행복한 생활도 있을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노동은 세계를 창조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은 모든 물질 문명, 정신 문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자면 모든 인민들이 근면하게 노동하여야 하며, 노동을 사랑하는 것은 무산계급 혁명 위업의 후계자들이 갖추어야 할 혁명적 품성의 한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산계급 사상의 영향을 배격하여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주의 근로자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이처럼 중요하고 영예스러우며 영광스러운 직책인 노동이 ‘낡은 사회’²¹⁾에서는 천한 것으로 인식되어 근로인민들이 ‘하등민’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낡은 사회에서는 계급적 착취와 억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토지·도구·원료·기계·공장 등이 모두 착취계급에 점유당하여 근로자들은 열심히 노동하였으나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중공은 토지·기계·공장 등의 생산수단이 근로인민들에게 돌아와 인민들의 공동재산이 되었으므로 인민에 대한 착취가 없는 인류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였다는 것이다. 모택동은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은 우리에게 리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길을 개척하여 주었다. 그러나 최상의 경지는 우리의 부지런한 노동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²⁾

주20) 「사상 품성과」 제 1권, 소학교 5학년, 1982, p.115.

21) “낡은 사회”란 중국이 공산화 되기 이전을 가리킨다.

22)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 1982, p.61.

한편 중공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과 함께 현대과학기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 학교 초중교과서 제 4과는 “과학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과학 교육의 강조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현대화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이란 인류가 자연을 ‘전승’하는 무기일 뿐 아니라 인류사회 발전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신 과학 기술 교육이 생산에 이용되면 생산력의 향상으로 경제발전을 대대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대화된 과학 기술이 없이는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공업 및 현대적 국방을 건설할 수 없으며 높은 속도로 인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중공은 과학 기술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만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대한 기술적 개조를 이룩할 수 있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사회의 정치·사상·문화·예술·교육 및 도덕적 품성과 같은 방면의 발전도 촉진시킬 수 있다.”²³⁾

과학 교육에 의해 과학적 세계관을 수립하여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적 세계관을 수립하자면 과학지식으로 두뇌를 무장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과

주 23)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 1982, p.46.

학지식은 자연과학 지식과 사회과학 지식의 두 측면을 포괄하는데 자연과학 지식의 정신에 의해 착취계급의 종교·미신 사상을 타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미신은 인류사회의 초기에 생산력이 낮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연계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었고 ‘전승’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종교·미신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허망한 것을 믿으며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인데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계급들은 종교·미신 사상을 착취제도의 유지를 위해 이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미신을 반대하는 것은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편 과학적 세계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 지식, 즉 “맑스-레닌주의, 모택동 사상으로 우리의 두뇌를 무장하여 문제를 파악하는 올바른 입장과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 노동과 현대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조국·인민·집단·중국 공산당의 사랑

소위 사회주의 조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조국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 집단에 대한 사랑,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사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먼저 ‘조국사랑’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주 24)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 1982, p.54.

「청소년 수양」 상권 제 1 과는 “조국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사상 품성과」 제 1 권 소학교 4 학년에서는 제 1 과 “나는 조국의 아름다운 강산을 사랑한다”, 제 2 과 “조국을 사랑하며 4 개 현대화 실현을 위하여 헌신할 포부를 가져야 한다”, 제 3 과 “조국을 위하여 부지런히 학습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사상 품성과」 제 1 권, 소학교 5 학년에서는 “사회주의 조국은 좋다”는 제목으로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는 애국주의 교육을 다루고 있다. 애국주의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조국은 우리를 키워주는 어머니이다. 우리의 위대한 조국에는 장려한 산천, 유구한 역사와 근로 용감한 인민들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가 세워져 있다. 조국에 대한 가장 두터운 감정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정신이 바로 애국주의이다. 애국주의적 품성을 배양하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 수양”이라고 기술되어 있다.²⁵⁾ 좀더 구체적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 즉 애국주의를 살펴보면 민족 자존심과 민족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 독립과 조국의 부강을 위하여 ‘선뜻이’ 몸을 바치며 ‘간고 분투’하려는 정신을 가지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사회주의 조국, 즉 ‘새 중국’에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²⁶⁾ 또한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공산주의 도덕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공산주의 도덕 품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주 25)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 년제 학교, 초중교과서, 1982, p.11.

26) 여기서 “새 중국”이란 1949년 10월 1일 모택동에 의해 세워진 현재의 중공을 가리킨다.

준칙이 된다는 것이다.

조국을 사랑하자면 무엇보다도 “당이 시키는 대로”²⁷⁾ 해야하며 애국주의 정신의 발현은 무산계급 정권을 사랑함으로써, 인민을 사랑함으로써, 집단을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공산당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인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진 교육내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 제2과는 “인민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사상 품성과」 제1권 소학교 2학년용 제6과는 “어릴 때부터 근로 인민들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사상 품성과」 제1권, 소학교 5학년 제2과는 “일심 전력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소위, ‘인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류 사회의 역사는 인민들이 창조한 것이며 인류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한 것도 인민들의 노동에 의해 이룩된 것이다. 청소년 세대가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도 인민들이 정성껏 길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힘써 ‘복무’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품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모택동은 “군대와 인민은 승리의 기본”이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군대란 바로 인민무장을 말하며 인민이란 인민대중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 중국혁명을 영도하여 승리를 전취하

주27) 「사상 품성과」 제1권, 소학교 5학년, 1982, p.75.

게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공 공산당의 승리는 인민의 지지와 옹호를 받았기 때문이며, 장 개석, 림 표, 강 청 등의 실패는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인민들과 대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민들의 공동 노력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붉은 중국’²⁸⁾이 남겨 놓은 상처를 씻고 인민 경제를 복구할 수 있었으며 인민의 공동 분투와 창조적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착취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공동 소유를 수립할 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닦을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을 비롯한 모든 물질적 부는 근로 인민들이 창조한 것이므로 학생들은 근로 인민들의 훌륭한 사상과 품성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공산주의 위업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에는 한이 있지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는 한이 없다. 나는 이 한있는 생명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없는 사업에 바치겠다”는 정신으로 인민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⁹⁾ 이처럼 일심 전력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인민의 이익으로부터 시작하여 처리해야 하며 모든 것을 “당이 시키는 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³⁰⁾ 그러므로 국가의 주인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며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의 근본

주 28) 1949년 10월 1일 이전의 중국을 가리킨다.

29) 「사상 품성과」 제 1권, 소학교 5학년, 1982, p.22.

30) 「사상 품성과」 제 1권, 소학교 5학년, 1982, p.23.

목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한편 집단주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내용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사상 품성과」 제1권, 소학교 2학년용 제2과는 “집단을 관심하고 집단을 위해 주동적으로 좋은 일을 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 제6과에서는 “집단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집단주의 정신 및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사회주의적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집단이란 조직이 있고 공동의 혁명적 목표와 행동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로서 집단은 개인이 성장하는 장소이므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은 집단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집단주의란 모든 면에서 인민 대중의 집단적 이익을 근본 출발점으로 하여 집단의 영예를 소중히 여기고 집단의 이익을 자각적으로 수호하고 집단적 규율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개인이익을 집단이익에 복종시키는 사상을 말한다. 집단이익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이익, 전체 인민의 이익을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전체 성원들의 공동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집단이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집단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개인이익을 두번째 자리에 놓아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집단이익을 위해 개인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바쳐 집단이익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³¹⁾ 집단이익은 개

주31)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 1982, p.77.

인이익의 원천이며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집단이익을 떠난다면 개인이익은 수원없는 강, 뿌리없는 나무로 되고 말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 사랑’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사상 품성과」 제 1 권, 소학교 4학년용 제 4과는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사상 품성과」 제 1 권, 소학교 5학년용 제 5과는 “당은 우리를 영도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제목으로,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의 제 3과 역시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중국 공산당 사랑’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인민은 당의 영도가 있었기 때문에 해방도 되었고 “신세를 고쳤다”는 것이다.³²⁾ 즉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으며 오늘의 행복한 생활도 있을 수 없으므로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며 당의 말을 들으며 당의 훌륭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³³⁾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라는 노래가 인민들에 의해서 즐겨 불려지는 혁명가곡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 없다네,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 없다네, 공산당은 민족 위해 힘을 다하고 공산당은 한마음으로 중국을 구하네, 그이는 인민에게 해방의 길 가리키고 그이는 중국을 광명으로 이끄네.”³⁴⁾ 이처럼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정확한 정치 노

주 32) 낡은 사회에서는 근로 인민의 지주들 때문에 남의 집 무마만도 못한 생활을 하였으나 공산당에 의한 새 중국사회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토지와 집 등을 분배받고 살고 있으니 “신세를 고쳤다”는 뜻이다.

33) 「사상 품성과」 제 1 권, 소학교 4학년, 1982, p.44.

34) 「사상 품성과」 제 1 권, 소학교 4학년, 1982, p.46.

선과 안정 단결된 정치가 있을 수 없으며, 현대화도 실현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견지하지 못하며,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간부를 가질 수 없음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산당이 중국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사업을 영도해야 하는 것은 동요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만일 이 원칙을 포기한다면 중국은 퇴보하며, 분열되며, 낙후하게 되며, 현대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으로 무장한 중국 공산당 ”을³⁵⁾ 사랑하고 확고부동하게 당을 따라가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상 품성에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한다. 오늘날 인민들이 노력하는 것은 바로 당의 최종 목적인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한다.

5. 사상수양 - 공산주의적 도덕품성배양

수양이란 “ 일정한 요구에 따라 그리고 자기의 실정에 결부시켜 고심히 학습하고 단련함으로써 자기를 끊임없이 제고하여 덕재가 겸비하고 몸과 정신이 건전한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⁶⁾ 수양에는 의식을 높이는 사상 수양, 과학 문화 지식을 습득하는 문화 수양, 그리고 체육·미육 방면의 수양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양이란 주로 사상 수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상 수양이 요구되는 이유는 인류가 일찌기 시도해 보지 못한 사회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상의

주 35) 「 청소년 수양 」 상권,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 1982, p.40.

36) 「 청소년 수양 」 상권, 전일제 10년제학교, 초중교과서, 1982, p.4.

식과 훌륭한 도덕적 품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청소년들이 '덕지체' 여러 면에서 모두 발전하여 사회주의적 의식이 있고 문화가 있는 근로자로 될 것을 당이 교육방침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에 있어서 사상 수양은 주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도덕이란 "사람들의 사상과 행위를 평가하고 지도하는 준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⁷⁾ 도덕은 또한 계급성을 가지고 있는데 착취계급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도덕과 공산주의 도덕은 서로 다르다고 한다. 즉 봉건사회에서의 지주 계급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가들은 봉건통치와 착취제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임금·신하·아버지·아들의 등급 관계를 엄격히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데 이런 것들은 모두 봉건적 도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계급은 대대손손 노동하고 압박착취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근면하고 검박하고 성실하고 의롭고 완강한 품성을 배양"하였는데,³⁸⁾ 이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근로인민과 착취계급의 도덕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근로인민의 도덕, 즉 "무산계급의 도덕은 인류의 가장 숭고한 도덕으로 바로 공산주의 도덕"이라고 한다.³⁹⁾

공산주의 도덕을 무산계급의 도덕이라 하는 이유는 공평무사한 정신, 집단주의 정신, 단결호조 정신과 같은 근로인민인 무산계급의 근

주 37)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 학교, 초중교과서, 1982, p.5.

38)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 학교, 초중교과서, 1982, p.6.

39)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 학교, 초중교과서, 1982, p.7.

본이익과 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이며, 공산주의 도덕을 인류의 가장 숭고한 도덕이라 하는 이유는 무산계급은 가장 진보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계급이고 공산주의는 무산계급의 최고 이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근로인민들의 도덕 전통을 계승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 도덕이라는 것이다. 근로인민의 이익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인민의 이익은 공산주의자의 기본표식이며 혁명 후계자들이 가져야 할 품성으로 공산주의 도덕의 핵심은 바로 인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사상수양으로서의 공산주의적 도덕품성배양을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의 10 가지로 대표된다.

1.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며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여야 한다. 학습에 노력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에 공헌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제때에 등교하며 지각·조퇴·무고결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강의를 잘 들으며 부지런히 사고하며 숙제를 잘 하여야 한다.
4. 신체단련을 견지하고 유익한 오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5. 노동에 적극 참가하며 노동결실을 아껴야 한다.
6. 검박하게 생활하며 위생을 잘하며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며 가래를 아무데나 뱉지 말아야 한다.
7. 학교 규율을 지키며 공중질서를 지키며 국가 법령을 지켜야 한다.
8. 선생님과 어른을 존경하며 동무들과 단결하며 예절있게 사

람을 대하며 남을 욕하지 말며 남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

9. 집단을 사랑하고 공공물을 애호하며 인민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10. 겸손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배양을 위한 10가지 내용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도덕 교육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상 품성과」 제1권 소학교 4학년 제6과는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데, 구체적인 예로 노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다 주기, 맹인 또는 거동하기 힘든 사람을 부축해 큰 길을 건너다 주는 일, 차 안에서 노인·허약자·병자·불구자·어린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일, 군인가속·「5보호」집에 가서 물을 길러주고 나무를 패어주며 청소를 해주는 일, 가정에서 부모를 도와주는 일, 어린 동생이나 하급학년의 어린이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 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노인을 존경한다든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례절이 바른 어린이로 되어야 한다”는 제목을 가진 「사상 품성과」 제1권, 소학교 2학년용 교과서에서는 예절이란 남을 존중하고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표식인 문명한 행동으로 사회주의 사회인 ‘새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나, ‘넓은 사회’인 옛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남과 싸우고 남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을 거칠게 하고 상스럽게 하는 나쁜 사회 기풍만을 찾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중 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년제 학교 초중교과서에서는 공공질서를 지키며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은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의 구체적 표현이며 청소년 사상 품성 수양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실과 겸손, 그리고 용감한 소년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양」 하권, 제 13과 “성실하고 겸손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사상 품성과」 제 1권 소학교 4학년 제 10과에서는 “성실하고 용감한 소년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사상 품성과」 제 1권, 소학교 5학년 제 13과에서는 “성실하고 용감한 새 소년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성실이란 말하고 처신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접속하는 데서 태도가 솔직하며 언행이 일치하고 표리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데, 이와 같은 성실성은 바로 근로인민의 본색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근로인민들은 남을 착취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자기의 노동에 의거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을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를 배양하였으며 허위나 기만을 몹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산당은 협애한 사리사욕이 없이 근로인민들의 근본적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성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착취계급은 피착취자인 근로인민을 영원히 피압박과 피착취의 지위에 고착시켜 놓기 위하여 허위와 기만을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착취계급 내부의 권력 쟁탈을 위하여 허위와 기만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착

취계급자들은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의도덕을 불어대며 그지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청렴결백하고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는 체 하지만, 그리고 정면에서는 서로 손을 맞잡고 반갑게 대하는 체 하지만, 배후에서는 서로 혈뜯는다”는 것이다.⁴⁰⁾

성실한 인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과 인민에 솔직하고 당과 인민과 조국에 충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용감성을 기르기 위한 공산주의 도덕으로서 용감이란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와 자기 희생적 정신을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용감한 행위의 그릇된 사례로서는 반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 등은 용감하고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예컨대 파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든가, 인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자를 위한 죽음, 개인의 은혜를 갚기 위한 희생 또는 죽음, 개인 영웅주의라든가 의협심 등과 같은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상 품성과」 소학교 5학년 제7과는 “간고소박한 혁명전통을 영원히 잊지말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청소년 수양」 하권 제14과는 “간고 소박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인민들에게 고생을 이겨내고 곤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근면하고 검소하며 향수를 탐내지 않는 생활을 참고 지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즉 간고 소박한 생활은 공산당의 전통이므로 학생들도 이를 따르는 생활을

주 40) 「청소년 수양」 하권, 전일제 10년제 학교, 초중교과서, 1982, p.47.

요구하면서 행복이란 간고분투하는 데서 오는 것이므로 간고분투하는 과정이 바로 행복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산계급사회에서는 자산계급들이 먹고 입는 것만 추구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그릇된 사회기풍을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악습을 배격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수양」 하권 제 10 과에서는 “시비를 뚜렷히 가리고 아름다운 것과 미운것을 식별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미와 추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등을 다루고 있다. 먼저 美에는 대자연의 미와 사상의 미가 있는 데, 사상미란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과 진리를 위해 몸 바치는 동지의 사상 혹은 조금도 개인적이 아니고 오로지 남을 위하는, 즉 근로인민들과 공산당을 위하는 것은 사상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봉건주의, 자산계급, 자본주의 사상은 美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리사욕을 차리며, 일하기 싫다고 놀기만 좋아하고, 규율을 지키지 않으며, 공공물을 파손하며, 공공질서를 교란하고, 교원에게 의의가 없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며, 퇴폐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善이란 곤란에 처해 있는 남을 돕는 일로서 인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사회의 안정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나쁜 사상, 악한 행동과 투쟁하는 것이 바로 善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립 표, 강 청 등의 무리와의 동지들의 투쟁을 바로 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립 표, 강 청, ‘4인 무리’ 등은 악한 사

람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공정성이란 공평하고 정직한 것으로 개인·가정·소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즉 사심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정성을 실현하자면 개인의 이익, 가정의 이익, 소집단의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지 말고 국가·인민·집단의 이익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성의 실현에서 요구되는 것은 간악한 무리인 자산계급과 투쟁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낡은 사회에서 착취계급은 정치와 경제의 대권을 ‘틀어쥐고’ 자산계급자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해 근로인민들을 멸시하고 억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도덕이 가지는 행복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착취계급에서는 남을 해치기만 하고 자기만 이롭게 하며 마음껏 향락만 누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산계급의 행복은 집단의 이익과 서로 연관되는 것으로 자기의 두 손으로 재부를 창조하여 인류의 해방사업, 즉 공산주의를 위하여 일체를 바치는 것을 행복으로 본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행복이란 노동에 의해 풍부한 물질을 생산하는 한편, 공산주의 정신의 실현에 의한 고상한 정신생활을 가지는 것이 참된 행복, 즉 더욱 큰 행복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Marx에 의하면 행복은 투쟁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한다. 투쟁을 겪어 승리를 달성한 행복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므로 사회주의 조국 건설과 인류의 해방을 쟁취하자면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B. 북 한

1. 김 일 성

a. 어린시절과 그의 족보

김 일성은 1912년 4월 12일 만경대에서 출생했는데 가정은 가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족들은 열심히 일했으나 일제와 지주 놈들이 농사지은 것을 몽땅 빼앗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증조부를 비롯한 조부모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몸바쳐 싸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⁴¹⁾ 즉 증조부 김 응우는 대동강에 기여든 「샤만」호를 불살라버렸고, 조부모 김 보현과 이 보익은 일제와 지주를 미워했을 뿐 아니라 아들과 손자(김 일성)를 애국·독립운동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 일성의 아버지 김 형직은 1917년 3월 23일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했고, 어머니 강 반석은 독립운동을 하는 남편과 아들 김 일성을 도왔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일성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김 일성의 어머니를 “우리 어머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부름에는 ‘조선의 어머니’라는 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⁴²⁾ 또한 김 일성의 작은 아버지인 김 형권과 동생인 김 철주도 김 일성의 ‘가르치심대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김 일성은 어려서부터 지주를 미워하고 지주의 아들을 혼내

주 41)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시절」 초급 4, 1977, p.7.

42)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시절」 초급 4, 1977, p.14.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 일성이 태어나 자란 ‘만경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며 우리 인민의 더 없는 자랑”이라는 것이다.⁴³⁾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시절」이라는 초등학교 4학년용 교과서는 제 2과, 제 3과, 제 4과, 제 5과를 제목으로 각각 “김 형직 선생님”(김 일성의 아버지), “강 반석 선생님”(김 일성의 어머니), “김 형권 선생님”(김 일성의 작은 아버지), “김 철주 선생님”(김 일성의 동생)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 과마다 첫 페이지 전면에 달하는 크기로 그들 각각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b. 독립운동과 조국해방

김 일성은 1932년 4월 25일 「항일유격대」의 조직을 비롯하여 1936년 5월 5일 「조국 광복회」를 조직한 이래 15년간 항일투쟁 및 독립운동을 하여오던 중 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군 혁명 부대에 조국을 해방하는 전투명령을 내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용감한 진격 앞에 무릎을 꿇어 조선 인민이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해방의 날을 가져다 주시였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⁴⁴⁾ 그러므로 김 일성은 “잃었던 조국을 찾아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라는 것이다.⁴⁵⁾

주 43)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시절」 초급 4, 1977, p.7.

44)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초급 4, 1975, p.116.

45) 「사회」 중급 2, 1974, p.5.

c. 주체사상

김 일성은 천재적인 재능과 심오한 통찰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한다. 즉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의 본성’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해결했는데 사람의 본성이란 바로 ‘자주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주성에 근거해 주인다운 태도로 일하며 투쟁할 것을 가르치는 김 일성의 사상이 바로 주체사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을 실천하는 방법은 “김 일성의 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원수님의 ‘사상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며,⁴⁶⁾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⁷⁾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김 일성에 의해 조국의 광복도 이루어졌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노동자 농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워 주었고 사회주의 모범의 나라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 일성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조선이 있고,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전체 조선 인민의 행복한 오늘이 있으며 희망한 래일이 있다”는 것이다.⁴⁸⁾

d. 어버이와 아들 딸

김 일성은 ‘어버이’이고 북한의 인민은 바로 그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다. 교과서의 제목에서만도 ‘어버이와 아들

주 46) 「사회」 고급 1, 1975, p.79.

47)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 3, 1972, p.109.

48) 「사회」 중급 2, 1974, p.8.

딸'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곳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사회」 초급 6 제 3 과의 제목을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기 위하여”, 제 28 과는 “아버이 수령님의 품에 안겨”, 제 32 과는 “아버이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의 해빛아래”,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 3 제 4 장 제 4 절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아버이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치심 따라 재일동포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 옹호를 위한 투쟁을 세차게 벌리고 있습니다”는 제목을, 제 5 장 제 2 절은 “아버이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친아버이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는 제목을, 「사회」 초급 1 제 4 과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딸이 되자”는 제목을 취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아버지’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고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일찍부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었는데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는 원수님의 가르치심과 혁명활동역사를 더 잘 연구할 것을 다시금 굳게 결의했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⁴⁹⁾ “우리 인민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원수님을 ‘친아버이로’ 우러러 모시고 그이에게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으며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위대한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을 이루고 있다”는 것

주 49) 「사회」 초급 6, 1973, p.21, p.23.

이다.⁵⁰⁾

한편 김 일성이 어린이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데, 김 일성은 끝없이 인자한 인품과 무한히 넓은 포용력을 가진 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 주는 데, 그 예로서 “몸이 약해 보이는 학생들에게 손수 귀한 ‘산삼’을 보내 준다”⁵¹⁾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사랑이 친 부모의 사랑보다 몇갑절 더 뜨겁다”⁵²⁾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살아도 원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원수님을 위하여 한 목숨 바치며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이다.⁵³⁾ 그러므로 김 일성을 수령으로 모시고 그의 ‘아들 딸’로 살며 싸우는 공지와 영예는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김 일성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며, 더 없는 행복이며, 첫째가는 ‘생명’이며, 모든 사업과 생활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한다.⁵⁴⁾

e. 민족의 태양

「사회」 중급 2는 김 일성은 “조국을 찾아주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된다.⁵⁵⁾ ‘김 일성’이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그리고 반드시 경칭이 붙는 데, 가장 간단한

주 50) 「사회」 고급 1, 1975, pp.61~62.

51) 「사회」 고급 1, 1975, p. 69.

52) 「사회」 고급 1, 1975, p. 70.

53) 「사회」 고급 1, 1975, p. 75.

54) 「사회」 고급 1, 1975, p. 78.

55) 「사회」 중급 2, 1974, p. 5.

것이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이고 심지어는 두세줄에 걸쳐 다섯개 이상이나 되는 경칭이 붙기도 한다. 예컨대 “1)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2) 민족적 영웅이시며, 3)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4)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탁월한 영도자의 한분이시며, 5) 조선인민의 위대한, 6)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에서와 같이⁵⁶⁾ ‘김 일성’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장황한 경칭의 수식어가 나열되는 예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이라는 교과서는· 그만 두고라도 「사회」등의 교과서의 제목의 대부분은 ‘김 일성’의 이름으로 시작되는가 하면, 교과서 내용의 상당한 부분의 문단이 바뀔 때마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으로 시작된다. 또한 김 일성이 한 모든 말, 즉 ‘교시’라는 것은 언제나 굵은 글씨(고딕체)로 쓰여져 있다.

한편 인민대중이 김 일성의 ‘은덕’으로 주권의 주인이 되고 공장과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김 일성은 농민에게 땅을, 노동자에게는 공장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 일성은 농촌에 부림 소도 보내주고, 농기구도 보내주고 식량도 보내주고, 현물세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⁵⁷⁾ 김 일성은 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환히’ 헤아리고 제때에 풀어줄 뿐 아니라 사업이나 공장이 나아갈 길도

주 56) 「사회」 중급 2, 1974, p.73. 「사회」 초급 6, 1973, p.191 등.

57)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 3, 1972, p.23.

‘환히’ 밝혀준다고 한다.

「김 일성 혁명활동」 초급 4에서는 “백두산에 새별 하나가 솟아 웬일인가 했더니 김 일성 장군께서 오셨다”(p.25). “김 일성 장군님께서서는 땅을 주름잡아 다니시면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시며 원썩들을 치신다”(p.25). “우리 장군님은 하늘이 낸 장수이시다(p.25). 한편, 인민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김 일성은 “축지법을 써 산을 마음대로 주름잡아 다니신다”(p.110). 김 일성은 “신묘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같은 시간에 앞산에서도 뒤산에서도 적을 치고, 동에서도 서에서도 적을 치며 원썩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긴다”(p.110). 김 일성은 “천지조화를 다 알고 계시며 천기를 내다 보신다”(p.110)는 것이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가리려며는 김 일성의 교시를 ‘자’로 하여야 하며, 김 일성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것들과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리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사회주의 국가

북한은 김 일성이 세워주고 영도하는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세계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서도 김 일성이 마련해준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는 “가장 으뜸가는 사회주의 나라”라는 것이다.⁵⁸⁾ 즉 북한의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근로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며,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주 58) 「사회」 고급 1, 1975, p.118.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 부터 나라와 인민을 믿음직하게 지켜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민의 이익을 해치려는 ‘원썬’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억누른다고 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가장 철저히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노동자, 농민의 국가”라는 것이다.⁵⁹⁾

즉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땅·공장·기계 등이 모두 다 노동자 농민인 근로 인민의 소유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근로자들이 생산한 모든 것은 그들 자신에게 ‘차례지며’ 사회와 인민을 위해 쓰여지는”⁶⁰⁾ 착취계급도 착취제도도 없으므로 먹고 입고 사는 데 걱정이 없다고 한다. 또한 김 일성이 세워준 사회주의조국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병이 생겨도 돈 한푼 안 받고 고쳐주므로”⁶¹⁾ “무병장수하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한다.⁶²⁾

한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무제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것을 천리마 운동에 의해 실증하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김 일성의 현명한 영도아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59) 「사회」 중급 2, 1974, pp.23~24.

60) 「사회」 중급 2, 1974, p. 27.

61) 「사회」 초급 6, 1973, p. 29.

62) 「사회」 고급 1, 1975, p. 7.

몇백년 걸려서 공업화한 과업을 불과 14년만에 이룩했다”는 것이다.⁶³⁾ 이와 같은 살기 좋은 사회는 “김 일성이 세워준 사회주의 조국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⁶⁴⁾

a. 자본주의 비판

일본·미국 그리고 남조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지주·자본가들이 나라의 권력 뿐 아니라 공장·광산·땅 등을 독차지하고 나라의 주인행세를 하기 때문에 노동자·농민과 같은 인민 대중은 자유와 권리도 없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주·자본가 등의 착취계급들이 제 배를 채울 생각에만 눈이 어두워 노동자들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고 남이야 죽든 살든, 어찌 되든지 “자기 혼자만 잘 살기 위하여 서로 물고 뜯는 사회”로서⁶⁵⁾ 남조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무지와 몽매·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고 있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거리를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⁶⁶⁾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는 자본주의의 착취계급 사회인 “남조선에서는 의학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오히려 병을 퍼뜨릴 뿐”⁶⁷⁾ 아니라 “병원이라는 것도 돈을 벌기

주63) 「사회」 중급 2, 1974, p.30.

64) 「사회」 초급 6, 1973, p.29.

65) 「사회」 중급 2, 1974, p.93.

66)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 3, 1972, p.114.

67)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 3, 1972, p.115.

위해서 미제와 지주가 세운 것으로 돈이 없으면 치료를 거부해 노동자·농민·근로인민들은 병이나도 병원에도 못가고 쓰러진다”는 것이다.⁶⁸⁾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는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며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근심 걱정에서, 배움과 병 치료에 대한 걱정에서 영원히 벗어나 “희망에 따라 재능과 소질에 맞는 부문에서 힘껏 일하며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⁶⁹⁾

b. 선거 및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

김 일성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가장 완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었다는 것이다. 즉, 북한에서는 “만 17세 이상되는 모든 공민들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모두다 선거하고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⁷⁰⁾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지주·자본가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썩고 병든 선거제도에 의해 인민의 대표가 아니라 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벼슬아치를 뽑는 실정으로 선거라기 보다는 오히려 착취계급 사이의 패거리 싸움에 지나지 않는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문맹자라든가 재산이 없는자, 흑인 등의 근로자들에게 60여가지의 구실을 붙여 인민들로부터 선거권을 빼앗고 있으며, 돈

주68) 「사회」 초급 6, 1973, p.31.

69) 「사회」 고급 1, 1975, p.164.

70) 「사회」 고급 1, 1975, p.140.

으로 남의 선거표를 사들여 대신 투표를 하거나 남몰래 가짜 선거표를 무데기로 투표하는 등 갖가지 더러운 협잡놀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협잡 선거가 “세계에서 제일 심한 곳이 바로 남조선이라는 것이다. 반대 투표를 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때리고 심지어 학살하는 만행까지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⁷¹⁾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근로자들은 오직 착취계급에게 순종할 의무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지주나 자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자유와 권리는 전적으로 통치자들과 착취계급이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것이며, 놈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부르쥬아 독재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⁷²⁾ 그러나 북한에서는 근로자들이 그들의 의사와 결의를 표시하는 중요한 정치활동인 “언론·출판·집회·시위를 비롯한 온갖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또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⁷³⁾ 이와 같은 근로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c. 노동

사람들은 노동을 통하여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 필요한

주 70) 「사회」 중급 2, 1974, p.36.

71) 「사회」 고급 1, 1975, p.141.

72) 「사회」 고급 1, 1975, p.140.

모든 것을 만들어 내며 행복한 생활을 창조해 나가기 때문에 김 일성이 마련해준 사회주의 조국에서는 노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롭고 보람찬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은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로력영웅’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손 하나 까딱 움직이지 않고 놀고있는 지주·예속자본가놈들은 잘 살고 있지만 피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농민들은 굶주리고 혈벗고 있다”⁷⁴⁾는 것이다. 이처럼 남조선에서 노동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의 착취 때문에 하루에 12~18시간까지의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도 굶주림과 혈벗음을 가져다주는 고되고 천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농민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지주·자본가 놈들에게 얹매어 일하지 않을 수 없고 착취계급자들에 의해 소나 말처럼 부림당하고 억압받고 학대받는다는 것이다. 지주·자본가놈들이 정권을 틀어쥐고 땅·공장·기계등 모든 생산 수단을 독차지하고 있으므로 근로 인민들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고생은 피할 수 없으나 사회주의 북한에서는 근로 인민이 주인인 나라이므로 노동에 의해 부를 창조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d. 집단주의

집단주의는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도 조직과 집단,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원수님을

주 74) 「사회」 초급 6, 1973, p.139.

위하여,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시로 돕고 이끌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사상”이라고 되어 있다.⁷⁵⁾ 노동계급은 지주 자본가놈들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어엎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로 “집단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고 강조한다.⁷⁶⁾ 이러한 “집단주의 정신의 깊은 뿌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 속에서 빛나게 이룩하시였다”는 것이다.⁷⁷⁾ 그러므로 집단주의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 일성에게 끝없이 충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일성에게 끝없이 충직한 사람만이 조국과 인민, 조직과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 수 있고 원수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직에서 주는 일은 그것이 다 김 일성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저러한 핑계가 있을 수 없다”고 한다.⁷⁸⁾

3. 조선 로동당

김 일성은 1945년 10월 10일 조선 공산당을 창건했는데 그 후 이름을 ‘조선 로동당’으로 바꾸었다.

김 일성에 의하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라고

주 75) 「사회」 고급 1, 1975, p.158.

76) 「사회」 중급 2, 1974, p.92.

77) 「사회」 중급 2, 1974, p.93.

78) 「사회」 중급 2, 1974, p.88.

한다.⁷⁹⁾ 당에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당이 있고, 지주·자본가 등 착취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이 있는데, ‘조선 로동당’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라는 것이다.

‘조선 로동당’의 창건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 일성 원수님에 의하여 령도되는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당, 백전백승의 ‘김일성주의 당’의 탄생”이며⁸⁰⁾ “조선 로동당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주의 당’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⁸¹⁾ “김일성주의 당인 조선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⁸²⁾ 즉 “조선 로동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 ‘무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김 일성 원수님의 당’이라고 한다.⁸³⁾

그러므로 조선 로동당은 김 일성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삼고” 있으며,⁸⁴⁾ 김 일성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 문제를 재어보고 그와 어긋나는 현상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당 안에

주 79) 「사회」 초급 6, 1974, p.18.

80) 「사회」 고급 1, 1975, p.89.

81) 「사회」 고급 1, 1975, pp.92~93.

82) 「사회」 고급 1, 1975, p.115.

83) 「사회」 중급 2, 1974, p.20.

84) 「사회」 고급 1, 1975, p.115.

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철저히 확립” 되었으며,⁸⁵⁾ 김 일성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 밑에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조직적 부대”로 되어있고,⁸⁶⁾ 김 일성 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하고 수령님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조직”이라는 것이다.⁸⁷⁾

김 일성이 이끄는 조선 로동당의 영도 때문에 북한의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김 일성이 영도하는 조선 로동당은 항일 무장 투쟁을 했고, 지주·자본가들을 쳐부셨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었고, 공장을 인민의 것으로 만들었고, 미제 승냥이들을 물리쳤고, 사회주의·공산주의로 인민을 영도하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은 김 일성의 “따사로운 품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다.⁸⁸⁾ “참으로 우리 인민의 승리, 우리 인민의 영예, 우리 인민의 행복은 모두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⁸⁹⁾

4. 반미사상과 남조선 인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서는 일제를 타도하여 조

주 85) 「사회」 고급 1, 1975, p.102.

86) 「사회」 고급 1, 1975, p.102.

87) 「사회」 고급 1, 1975, p.110.

88) 「사회」 초급 6, 1973, p.108.

89) 「사회」 초급 6, 1973, p.111.

국을 해방시키고”⁹⁰⁾ 사회주의적 개조를 한참하고 있을 때 “간악한 원쑤 미제는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전쟁을 일으켜” 공화국 북반부는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이다.⁹¹⁾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제 침략자들은 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도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남조선을 강점하고 또다시 공화국 북반부를 침략할 틈만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남조선은 지금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은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통치를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⁹²⁾ 미제 승냥이 놈들은 파주에서 산에 나무하러간 농민들과 어린이들을 총으로 쏘아 다섯명을 죽이고 세명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미제 의사는 상처입은 노동자들에게 독약을 발라 죽게 했다”는 것이다.⁹³⁾

그러므로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를 쓸어버리고 통일된 조국에서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⁹⁴⁾

미제 침략자들의 앞잡이인 남조선에서는 양자 혹은 이민이니 노동수출정책이니 하는 명분으로 동포들을 외국에 팔아넘기는 민족의 ‘원쑤’라고 말하고 있다. 양자로 미국에 간 어린이들은 “세균

주 90) 「사회」 고급1, 1975, p.124.

91) 「사회」 고급1, 1975, p.129.

92) 「사회」 고급1, 1975, p.113.

93) 「사회」 초급6, 1973, p.71.

94) 「사회」 초급6, 1973, p.61.

무기·핵무기의 실험대상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좀 나은 경우라야 깡이나 간첩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⁹⁵⁾ 이처럼 동족을 팔아먹지 말고 김 일성이 제안한 대로 “남조선의 실업자들을 북조선에 보내면 취업시켜 주고 공부시켜 주겠다”는 것이다.⁹⁶⁾

오늘날 남조선에서는 김 일성에 대한 다함 없는 신뢰와 흠모의 정이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차고 넘쳐 있다는 것이다. 즉 남조선 인민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절세의 애국자는 김 일성 장군님 밖에 없다. 조선 사람을 대표할 분은 오직 김 일성 수상님 뿐이다. 김 일성 수상님은 진정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고 우리 전체 조선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이실 뿐 아니라 세계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다. 남조선 인민들은 ‘김 일성 선집’ ‘김 일성 전기’를 연구하고 높은 덕성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고 있다. 삼엄한 파쇼적 폭압 속에서도 김 일성의 초상화와 공화국의 깃발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⁹⁷⁾ 한편 남조선 인민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김 일성 수상님은 진정으로 인민들 속에서 나온 수상이시며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이라고 흠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 1) 이남 사람들도 잘 살자면 수상님의 직접 지도를 받아야 한다.
- 2) 김 일성 수상님과 같은 위대한 영도자 밑에서 살다가 죽으면 원이 없겠다.

주 95) 「사회」 중급 2, 1974, p.64.

96) 「사회」 중급 2, 1974, p.63.

97)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 3, 1972, pp.219~220.

3) 모여 앉으면 김 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른다.

4) 감옥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김 일성 장군을 지지한다. 김 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함모의 정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⁹⁸⁾ 또한 남조선 인민들은 “김 일성 수상님이 정치를 잘 하시어 백성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자식들 공부시킬 걱정 등 아무 걱정없는 ‘희한한 세상’이 이북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김 일성 수상님이 령도하시는 이북 정치는 제일 좋은 정치이며 우리도 그이의 정치를 받아야 잘 살수 있다. 그러므로 공화국 북반부를 끝없이 동경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찾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⁹⁹⁾

5.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지금 남조선의 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피눈물 나는 생활을 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식민지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군대·경찰·특무들로 뒤덮힌 험악한 세상에서 언제 잡혀갈지 언제 원썩놈들의 총에 맞아죽을지 또 언제 굶어죽을지 모르면서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¹⁰⁰⁾ 반드시 우리 세대에 남조선 혁명을 완수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의 기본 임무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내

주 98)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3, 1972, pp.220 ~ 221.

99)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3, 1972, p.221.

100) 「사회」 중급2, 1974, p.70.

쫓고, 식민지 통치를 없애고, 군사적 과쑈를 뒤집어 엮고, 지주·자본가 반공관료배를 타도함으로써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세우는 일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중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김 일성이 가르친다는 것이다.¹⁰¹⁾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없이 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 수 있으므로 “혁명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투쟁, 경제투쟁, 합법과 비합법투쟁, 폭력과 비폭력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 형태를 옹계 배합하여 혁명 투쟁을 전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투쟁형태가 어떻든지간에 그 결정적 투쟁을 오직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²⁾ 남조선에서 혁명적 폭력으로 정권을 잡는데 대한 김 일성의 방침은 “남조선 혁명 승리의 결정적 방도를 밝힌 유일하게 정확하고 과학적인 혁명적 방침으로 이 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고귀한 경험 그리고 남조선 혁명과 세계혁명운동발전의 력사적 과정을 천재적으로 총화분석하시고 세우신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방침”이라는 것이다.¹⁰³⁾

남조선에서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존하는 동시에, 이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장성’시킴으로써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주 101)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 3, 1972, p.217.

102)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 3, 1972, p.218.

103)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 3, 1972, pp.218 ~ 219.

갖추는 것"이라고 김 일성이 가르친다는 것이다.¹⁰⁴⁾

C. 한 국

1. 개인 생활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자신의 발전과 행복한 생활의 의미를 깨달아 도덕적 판단 기준을 자율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간 형성의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청소년기가 가지는 특징과 그 의미를 깨닫고, 특히 현대인이 지혜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철학·예술·종교·과학,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지식을 익혀 현실속에 있는 나와 이상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나아가 가정·이웃·사회·국가 생활에서 자신의 자세를 확립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성실한 개인 생활의 영위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생각하여 바르게 행동하는 생활 태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전은 바로 사회의 발전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가 모두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가 취급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만족하고 사회에 바람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작은 일

주 104)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고급 3, 1972, p.218.

이라도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늘 생각하고 반성하여 자신을 다듬어 가는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자신을 갈고 닦는 성실한 생활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성실한 생활의 교육을 위해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인간 관계와 예절의 문제, 합리적인 생활태도, 건전한 윤리생활의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은 또한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이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선행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태도로 선행을 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삶과 행복과의 관계를 비롯한 선행의 보람, 공익을 위하는 생활,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제 분야가 다루어지고 있다.

개인생활의 중요한 다른 한 측면은 보다 직접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보람을 위한 노력이다. 이와 같은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인격의 도야, 인간 존중 사상, 고난을 극복하는 슬기, 올바른 삶의 자세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보람있는 삶을 위한 교육의 내용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생활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의 습득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 또는 가치관의 역할과 기능, 가치판단의 문제, 특히 인생에 있어서의 청소년기가 가지는 위치와 특징, 그리고 그들에게 부과되는 과

제, 자아실현의 문제를 비롯한 철학적 삶의 문제, 인간의 생활과 예술과의 관계, 과학과 인간과의 관계를 비롯한 과학 시대에 사는 인간의 자세, 인간의 삶과 종교와의 문제, 종교가 인간에게 주는 윤리성과 그를 통한 건전한 종교생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 측면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있는 삶인가, 우주에 있어서 인간의 위치는 어떠하며 인간은 왜 고민하고 깊은 사색을 하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가, 인간은 왜 신앙을 가지며 종교는 인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과학은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가 등의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보다 바르게 인간과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여 올바른 삶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참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끄는 교육내용이 전개되어 있다.

2. 사회 생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회를 떠날 수 없다. 개인의 성숙과 발전도 사회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나'는 언제나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나와 공동체의 목적을 함께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복지사회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생활태도를 가지게 할 목적으로, 우리 민족의 사상과 윤리적 전통을 이해하여 민족 공동체의 융흥에 기여할 수 있는 윤리관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현대 사회의 윤리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게 할 목적으로

사회생활 영역의 교육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고 사이 좋게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질서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에 대한 자신의 도리와 또 형제 간에 지켜야 할 도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서로가 믿는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사회 규범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을 지켜야 하며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질서가 유지되며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능력과 자율적인 태도 함양을 위해 서로간의 사랑과 공경, 정직과 신의의 생활, 준법정신과 질서를 실천하는 생활,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복지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사회의 건설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사회생활과 예절의 문제, 가정에서의 생활 윤리, 이웃 간에 서로 준수해야 할 도리, 복지사회건설의 문제 등이 교육내용으로 취급되고, 한편으로는 개인·사회·국가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여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할 목적으로 학교와 향토 사랑, 사회적 행동과 공익, 상부 상조와 사회발전에 관한 교육 내용이 취급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며 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또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봄으로써 우리 겨레의 사상적 전통을 이해할 필요성에 의해 우리의 고유 사상과 윤리, 불교, 유학, 크리스티교의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외래 사상과 윤리, 誠·敬·忠·孝, 협동 단결과 총화 호국의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겨레의 윤리적 전통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급변하는 현대 사회, 특히 산업기술의 발달, 인구 증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등 현대사회 속에서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윤리관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어떤 노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근대 사회, 현대 사회에서의 윤리를 살펴봄과 동시에 민주사회에서의 생활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3. 국가 생활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둔 주체적인 한국인으로서 국가와 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나아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함과, 국가 존립과 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이해하고 우리의 여건에 알맞은 민주주의 발전과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할 목적으로 교육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나라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스며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문화는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여야 하나, 우리는 어째서 새마을 운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

었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사회를 건설하려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등을 공부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을 기르게 되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를 목적으로 교육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는 나라와 나의 관계, 우리 민족의 전통, 자조·근면·협동정신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 나라의 국민이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가, 국토는 좁고 자원도 넉넉하지 못한 우리의 처지에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국토를 개발하고 어떻게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로운 민주 국가 건설, 경제 발전과 복지 사회, 국토 개발과 자원 활용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여 국가의 당면과제를 이해하고 국가 발전에 적극 노력하는 태도를 이르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우리 민족은 어떤 점에서 다른 민족과 다른가,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여 세계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발전을 계속하여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가,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탐구할 목적으로 민족 공동체 의식,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 민

주적 정치 발전, 세계 속의 한국 등을 주제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에 의해 문화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고, 조국의 현실과 미래상을 바르게 이해하여 민주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개인의 행복은 국가의 운명이나 성쇠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발전과 번영은 국민 각자의 생각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 민족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국가 민족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국가관은 어떤 것일까, 또 앞으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우리의 이념과 사상은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근대화 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 복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요청 되는가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주제로 국가의 존재 이유, 국가 건설과 민족주의, 현대 국가관의 여러 형태로서 다원주의적 국가관, 전체주의적 국가관, 공산주의적 국가관, 국가 발전의 윤리적 기초로서 자유와 질서, 다원성과 국론 통일, 국가 발전을 위한 정신 문화, 민주 복지 사회의 건설을 위한 새마을 운동과 정신 계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 시키고 있다.

4. 통일 교육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북한 공산 집단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조국의 민주적 평화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가 광복이 되자마자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국토를 분단하는 데 앞장 섰으며 마침내 6.25를 일으켜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연출 하였다. 북한 공산 집단은 지금 한반도를 공산화 하기 위한 전쟁 준비와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북한 공산 집단은 또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와 김 일성 후계 체제를 구축하여 세습 왕조를 만들고 북한 주민을 강제 노동으로 혹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개인 생활을 말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종교를 말살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이질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으로 국토 분단의 비극, 북한 공산 집단의 침략 책동, 북한의 정치 현실, 북한의 경제 현실, 북한의 사회 문화 현실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통해 국토 분단의 비극, 북한 공산 집단의 만행과 북한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우리 민주 체제의 우월성을 깨닫게 한다.

공산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현실은 어떤 것이며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은 무엇인가, 공산주의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적화시키려 하고 있는가, 공산 국가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공산화 되었으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공산주의자들의 적화 야욕을 분쇄하는 길은 무엇인가, 공산권은 왜 분열되고 있으며 자유화 투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공산 국가의 정치와 경제, 공산 국가의 세계 적화 야욕, 공산 국가들의

공산화 과정과 그 교훈, 공산권의 분열과 자유화 운동 등이 취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통해 공산 사회의 현실을 알고 민주 체제의 우월성을 깨달아 공산주의의 도전을 분쇄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함이 목적이다.

우리는 왜 통일을 바라는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통일 여건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룩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북한 공산 집단은 왜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면서까지 적화 통일을 꿈꾸고 있는가, 그들이 내세우는 통일은 어떤 것이며 그것은 왜 부당한가,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 과 통일 의지 구현을 위한 우리의 실현 방향은 어떤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등에 답하기 위해 통일의 의의, 우리의 통일 정책,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야욕, 우리의 평화 통일 의지, 우리의 사명과 자세를 주제로 하는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통해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야욕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우리의 평화 통일 정책을 바르게 인식하여 조국 통일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국 수호와 국토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공산 혁명의 이데올로기와 공산 혁명의 실제, 공산 혁명의 전략과 전술, 북한 공산 집단의 대남 전략, 북한 공산 집단의 침략 전술,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 되고 있다.

Ⅲ. 비교 및 논의

A. 사상교육

1. 이념 교육

중공에서의 사상 교육은 한마디로 공산주의 교육이고, 북한에서의 그것은 김일성주의 교육이다. 여기에 비해 우리 한국에서의 사상 교육은 바로 민주주의 교육이다.

중공은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위해서 먼저 관념론 및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옹호하기 위해 맑스와 레닌, 그리고 모택동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중국 공산주의 이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어떤 특별한 이론적 기초나 배경의 제시도 없이 무조건 김일성주의만을 내세운다. 한편 한국은 보람있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생활 또는 삶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이론을 교육하고 있다.

중공의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철학으로서의 관념론 및 형이상학 자체를 부인한다. 주관적 관념론은 唯我論으로서 ‘황당한’ 이론이고 이것은 유물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반동 사상이라고 한다. 즉 반동적 낙후 세력들이 사용하는 사상으로 사상적 ‘원썩’이고 사상 영역의 大敵으로 침략 폭행을 위해 존재하는 파쇼주의, 제국주의의 철학이라는 것이다. 객관적 관념론 역시 ‘날조해 낸 물건 짝’으로 관념 세계니, 절대 관념이니 理니 하는 것은 神, 하나님의 대명사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황설(荒說)’로서 진

리의 敵이라고 한다.

한편 형이상학도 사물 또는 현상의 일면만을 보는 그릇된 것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자산 계급의 세계관인데 지주 자본가들이 통치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고 대중 혁명운동을 파괴하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현 시대의 반동 세력의 사상적 도구라는 것이다.

세계는 인간의 의식, 정신, 감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연계이든 사회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외부 세계는 서로 관련되어 있고 서로 轉化하고 있는 무수한 물질 형태의 통일체인 물질 세계이고 이 세계는 객관 세계의 발전 법칙에 따라 운동하고 변화할 뿐 아니라 또한 인간에 의해 능히 개조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맑스주의 세계관만이 '오직 완전히 정확한 세계관'이고 공산당 또는 노동 계급의 세계관으로 세계를 개조하는 방법과 무기이고, 과학적 공산주의 학설의 이론적 기초이고, 노동 계급 정당의 전략, 책략, 각종 정책의 이론적 기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 무기이기 때문에 맑스주의 철학의 지도를 떠나면 혁명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사회주의혁명과 모든 사업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두뇌 속에서 관념론 및 형이상학적 철학을 '반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중공은 이념 또는 철학으로서의 사상 교육을 오직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공산주의 사상만을 교육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문하는 태도 또는 자세로서 어떤 철학을 제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비관함으로써 그 철학을 개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의 기저인 변증 유물론 이외의 다른 모든 사상이나 이론으로서의 철학을 철두철미하게 배제하는 교육을 강행함으로써 올바른 학문 발전에의 길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다만 주입식 또는 세뇌에 의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만을 교육할 뿐이다.

북한에서의 사상 교육은 질이나 양에 있어서 중공의 그것 보다 더 질다. 그러나 사상 또는 이념 교육이란 공산주의 사상에 기저하는 것이기는 하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김일성 주의' 사상이고 이념이지 중공의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김일성 주의'는 달리 표현하면 김 일성 '숭배' 사상 또는 김 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말한다.

김 일성 개인 사상 숭배에 대한 교육은 철두철미하다.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교과서는 그가 태어난 집과 고향 만경대를 전 인민의 '마음의 고향'으로, 전 인민의 더 없는 '자랑'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김 일성의 조상들을 미화하기 위해 제 1 과에서 김 일성, 제 2 과에서 5 과에 이르기까지는 김 일성의 부모와 작은 아버지, 동생의 사진을 각각 한 페이지의 크기로 제시하면서 혈통을 숭배해 줄 것을 강요한다.

김 일성은 인간의 본성을 '자주성'이라고 정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한 천재

적인 재능과 심오한 통찰력의 소유자로 김 일성을 선전하고 있으며 소위 주체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인민은 김 일성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은 김 일성이 있으므로 해서 있는 것이고 조선 인민의 행복 역시 김 일성의 영도 때문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므로 김 일성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행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고 첫째가는 생명이며, 모든 사업과 생활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농민들이 농사짓는 토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등은 전부 김 일성이 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마치 토지와 공장 등이 김 일성 개인의 소유 재산을 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 김 일성이 소위 '전부'라는 그의 숭배 사상을 위한 노력이기는 하지만 공산주의의 공동재산 정신에 어긋나는 모순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숭배 사상은 결국 국 이상화에로까지 몰고가는 데, 구체적인 예로서는 김 일성을 '새별'에 비유하는가 하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원썩들을 친다든가, 하늘이 낸 장수, 축지법을 쓴다, 신묘한 힘을 가졌다, 천지조화를 다 알고 천기를 내다 본다는 등 마치 절대자, 神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사상인 데도 불구하고 김 일성은 스스로 神의 자리에 군림하는 위치로 이끌어지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예컨대 옳고 그름을 가리려며는 김 일성의 말을 '자'로 해야 하며 그것과 어긋나는 온갖 것들과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북한 사회에서 김 일성의 말은 마치 어떤 종교의 '경

전' 과도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김 일성에 대한 이상화 또는 신격화 현상은 북한의 인민들이 그를 '아버이' 라고 부르고 인민들은 아들과 딸의 관계를 강요하는 데서도 볼 수 있고, 또한 김 일성을 '태양'에 비유하는 여러가지 경칭의 호칭에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교과서의 課의 제목만 보더라도,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기 위하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 '충직한 딸'이 되자"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김 일성의 참된 아들 딸이 되기 위해 "원수님의 가르침과 혁명활동 역사를 좀 더 잘 연구하자," 혹은 "우리 인민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도 같이 원수님을 '친 아버지'로 우러러 모시어 그에게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다," "김 일성을 수령으로 모시고 그의 '아들 딸'로 싸우는 공지와 영예는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다"는 등 김 일성을 아버이로, 하늘에 있는 태양으로 받들자는 사상 교육에서 물질만이 궁극적 실재라는,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 의식, 종교 세계를 부인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에서 절대자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믿는 것과는 같이 김 일성을 신격화하고 있다. 또한 인민이 나라의 참된 주인임을 표방하면서도 인민을 '해바라기'에 비유하고 있음은 그들의 주장과 선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일성을 아버이 태양으로 받드는 그들의 이상화 운동은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의 가관에서도 볼 수 있다. 즉 김 일성이

라는 이름을 한번 부르기 위해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령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의 한 분이시며, 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
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이라는 장구한 수식어가 따른다. 사
상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분의 교과서는 제목의 다수가 김
일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고 또한 교과서 내용에서는 문단이 바
뀔 때에는 대부분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으로부터 시
작된다. 김 일성 앞에 붙는 수식어를 빼고 씌여지면 아마도 상당
한 양의 교과서 크기와 경비가 절감되어 북한의 인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신을 하나의 철학 또는 이념으로
교육하고 있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의 강조 보다는
생활인의 철학으로서 또는 인간관으로서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상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개인의 능력, 취미, 소질,
성격 등 모든 면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개인 생활의
가치를 중요시하여 그것이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교육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생각하
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법의 보호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생활만을 강조하는 철학
이 민주주의는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으로서의 생각과 생활
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동

체 생활을 가진다. 왜냐하면 민주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창조 정신을 동시에 발휘하며 사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한국, 중공, 북한의 사상 및 이념교육을 살펴 보았다. 공산주의 이론의 기저인 변증법적 유물론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관념론 및 형이상학을 하나의 철학으로서 받아들이기를 부인함으로써 인간의 정신 세계와 인간의 주관적 사고 자체를 송두리째 뽑는 사상교육 및 사고의 일대 혁명을 시도하고 있음을 중공의 교과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여러가지 측면과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에는 자연적, 물리적 세계도 있으나 '인간의 세계'도 있다. 인간 세계란 곧 정신 세계를 일컫는 것으로 인간의 의식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로 '의미의 구조'로서의 세계를 말함이다.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 그리고 그의 세계가 다르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처럼 의미의 세계, 곧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정신 세계를 말함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 또는 물리적 세계, 즉 물질 세계는 인간의 세계 속에 포함되는 일부로서의 세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공의 사상 교육은 오로지 물질 세계만을 세계로 인정하면서 인간의 세계는 부정하기를 강요한다. 이를테면 물질 세계 이외의 세계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세계이므로 실재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말과 같이 인간의 의식 또는 정신 세계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세계이다. 그러나 과학적인 증거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철학으로서의 관념론 및 형이상학을 자체를 부인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주관적, 정신적 삶을 영위하는 세계를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아마도 이 같은 결과는 철학과 과학을 혼동하는 데서 온 오류일 것이다. 과학적 증거가 불가능할 때 철학으로서의 하나의 사상을 함께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중공의 교과서는 올바른 진리 탐구의 방법이 보장되지 못하는 학문 풍토를 가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즉 유물론 세계관 이외의 관념론적 또는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말끔히 씻어버리고 배제 또는 반대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사고체계, 즉 사상이나 철학이 ‘완전한 진리’로서 받아들여질 수는 없거나 또는 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이나 이론은 그것들이 실재하는 것 또는 현상에 대한 일부를 기술하고 있거나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자세에서 볼 때에 여러가지 사상을 소개하고 탐구함으로써 개인의 학문적 취향에 따라 그 철학을 받아들이고 안하고자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공은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특정한 사상, 즉 공산주의 사상만을 하나의 철학으로서 강요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사상 교육은 그 대상이 중공에서의 변증 유물론과는 달리 ‘김 일성 사상’ 자체임을 보았다. 김 일성은 하늘에 있는 ‘태양’으로 전 인민의 ‘아버지’이고 인민은 ‘아들 딸’이므로 김 일성의 모든 말은 하나의 ‘자’가 되어 그 자로 재어 보아

그것에 부합되면 따르고,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야 하는 사상이 바로 김 일성 사상이다. 김 일성의 ‘사상대로’ 생각하고, 김 일성의 ‘의도대로’ 행동하여야 하는 북한 인민의 생활은 인간으로서 존엄성도, 개인으로서의 개성도, 사고의 자유도, 자유 의지도 없는 그야말로 기계적, 물리적, 인간관 속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인간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기계적, 물리적 인간으로서의 삶은 중공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교육은 ‘인간의 교육,’ ‘인간에 의한 교육,’ ‘인간을 위한 교육’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으로서’의 사상 교육이다. 정신과 물질, 자연 세계를 함께 가지는 ‘인간 세계관’의 입장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보장됨과 동시에 공동체 생활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와 국가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공과 북한의 획일적이고 인간성을 고려하지 않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상과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우리의 이념 교육이 인간의 생활을 행복하게 이끄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위를 차지하는 사상 교육임을 알 수 있다.

2. 집단주의 및 애국주의

사상 교육의 일환 또는 연장으로서 중공과 북한은 상당한 정도의 집단주의 정신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교과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중공에서의 집단주의 교육의 핵심은 ‘개인 이익을 집단 이익에 희생 또는 복종시키는 사상’이다. 또한 필요할 때에는 개인의 목

숨까지도 바쳐 집단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사상이다. 즉 모든 면에서 인민 대중의 집단적 이익을 근본 출발점으로 하여 집단의 영예를 소중히 하고, 집단적 규율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집단 이익에 기여하는 정신이 집단주의 정신이다. 북한에서의 집단주의 교육도 중공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집단주의 사상은 김 일성을 위한 사상이 하나 더 요구되는 사상 교육이다. 즉 집단주의란 조직과 집단, 조국과 인민의 이익을 귀중히 여길 뿐 아니라 ‘김 일성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노동 계급의 사상이 북한에서의 집단주의 사상이다. 김 일성에게 끝없이 충직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조국과 인민, 조직과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 수 없고, 그러므로 김 일성을 목숨으로 옹호 보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집단주의 사상에서 엄청난 모순과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에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 소위 중공이나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단주의 사상인 데, 김 일성이라는 한 ‘개인’을 위하는 것이 어찌 집단의 이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은 바로 전체 인민은 김 일성 하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구호일 것이다. 김 일성은 곧 전체 인민과 같다는 생각이다. 수식으로 표시하면 “김 일성 = 집단”이다. 집단주의 사상을 내세우는 북한의 사상 교육은 곧 김 일성 개인을 위한 사상 교육으로 자체 모순의 큰 오류를 스스로 범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의 이익을 위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개인은 사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생활을 떠나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 인간의 삶은 각자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보다 넓은 사회의 공동 이익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삶이며, 또한 집단에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 집단 속에서의 삶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느끼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발전은 사회의 원동력이 되고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집단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로 개인의 발전과 집단 또는 국가 사회의 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삶이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교육은 집단의 이익 또는 발전을 위한 교육이 강조될 뿐 아니라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나 중공에서 실시하는 소위 '집단주의' 사상 교육은 아니다. 우리는 공산권에서처럼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즉, 인간을 수단적 가치로 여기는 교육은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집단의 이익과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은 실시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의 그것과 우리의 것은 크게 다르다.

집단의 단위로서 가장 큰 것은 결국 '국가'이다. 나라 사랑 또는 애국심 교육은 그러므로 집단주의 또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교육의 연장이다.

중공에서는 조국을 사랑하자면 무엇보다도 ‘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며, 애국주의 정신의 발현은 무산계급 정권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교육한다. 또는 근로 인민을 사랑함으로써, 집단을 사랑함으로써, 공산당을 사랑함으로써, 애국주의 정신은 발휘된다고 한다.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애국주의니 나라 사랑이니 하는 말을 직접 또는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그들은 김 일성을 어버이로 모시며 충성을 다하는 아들 딸이 되자는 말만 강조하고 있다. “참으로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 일성 원수님께서 제시기에 조선이 있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김 일성이 곧 국가라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따로 애국심이니 나라 사랑이니 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김 일성을 받드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 국가에서의 애국하자는 교육은 중공에서처럼 ‘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또는 무산계급 정권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애국주의 정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특히나 북한에서처럼 김 일성이라는 개인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 될 수는 더욱이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애국심 교육은 국민 각자의 발전을 위하는 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같다는 생각에서 나라를 사랑하자는 교육이다. 이 말은 나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생각에서 나라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하는 자발적 애국심이다. 이러한 애국심은 나라의 존속과 발전의 성패는 곧 나의 책임이라는 주인 의식에 생기는 참다운 애국심이다.

3. 노동

중공과 북한에서는 노동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이 상당한 양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공의 교과서는 노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직책이라는 것이다. 노동은 사회의 물질적 부를 창조할 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창조함으로 노동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인류는 노동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고 무산계급 혁명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민들이 근면하게 노동하고 노동을 사랑해 주어야지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자산 계급의 사상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북한에서도 노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롭고 보람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인민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놀고 먹는 남조선의 자본가, 지주를 닦지 말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착취계급 자들에 의해 근로 인민들이 천한 대우를 받으며 소나 말처럼 부림당하고 억압 받고 학대받지만 김 일성이 마련해 준 사회주의 조국에서는 노동이야말로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노력영웅’의 칭호를 받는 근로자는 인민의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과서에서도 노동 즉, 일의 신성함을 강조하고, 모든 국민이 성실하고 근면하게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노동이 중요하고 신성한 것은 중공이나 북한의 교과서가 강조하듯이 그러하다. 그러나 비록 ‘노동이 신성하다’는 표현과 강조는 같지만 그 숨은 뜻은 우리의 것과 공

산세계에서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인간은 활동하지 않고는 즉,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좁게는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생산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적 존재로서의 삶만을 위해 인간이 일을 하고 생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즉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삶의 의미 또는 보람을 찾는 존재이기도 하며, 인간의 인간적인 삶은 후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일을 하는 데서 그의 가치를 실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일 즉, 노동을 해야하고 그것은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중공이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소위 공산 혁명을 완수할 목적으로 인민들에게 노동은 신성하고 영예로운 직책이므로 노동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다. 특히 공산 사회에서는 인민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주지도 않으면서 노동을 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일하는 보람을 찾을 수도 없고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마디로 중공이나 북한에서는 '노동은 신성하다'는 것을 빙자해 노동의 강요로 그들의 혁명 과업 또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자는 데 있다.

4. 당

중공과 북한은 각각 당을 사랑할 것을 강요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공은 오늘날 그들이 '해방'된 것은 공산당의 영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인민이 착취 계급의 억압과 압박, 그리고 착취로부터 벗어나 소위 '신세를 고친' 것도 모두다 중국 공산당

의 영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으며 오늘의 '행복한' 생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고 말을 잘 들으며 당의 훌륭한 어린이가 되어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없다네"라는 노래를 소위 혁명 가곡이라 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부르게 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 건설 사업과 중국의 영도는 반드시 공산당이 영도해야 하는 동요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이 원칙을 포기한다면 중국은 퇴보할 것이며, 분열되고 낙후하게 되어 현대화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소위 노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조선 로동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 로동당은 그것이 바로 '김 일성의 당'임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며 당을 위하는 일과 김 일성 개인을 위하는 일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들면 "조선 로동당의 창건은 혁명의 령재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 일성 원수님에 의하여 령도되는 혁명적인 노동 계급의 당으로 백전백승의 '김 일성 주의' 당의 탄생이다." "조선 로동당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 일성 주의' 당으로 되였다," "김 일성 주의' 당인 조선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조선 로동당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 무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김 일성 원수님의 당'이다," "당 안에는

수령님의 교시와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었다,” “조선 로동당은 수령님의 유일적 령도밑에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조직적 부대이고, 김 일성 사상을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하고 수령님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 조직이다” 등과 같이 북한의 조선 로동당은 김 일성을 위한, 김 일성에 의한, 김 일성의 정당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당이 조선 로동당이라는 말은 한낱 구호에 그치는 것이다. 김 일성 개인을 숭배하고 신격화하여 우상으로 받들듯이 당에 대해서도 충성을 다할 것을 강요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중공이나 북한에서의 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교육과는 달리 우리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단 한마디도 특정 정당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의 실현이다.

5. 통일 정책

북한의 김 일성은 소위 항일 혁명 투쟁의 경험, 남조선 혁명과 세계 혁명 운동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이룰테면 천재적으로 총화 분석하여 세운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통일 방침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폭력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즉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투쟁없이 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 수 있으므로 혁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 투쟁, 경제 투쟁, 합법 또는 비합법 투쟁, 폭력 또는 비폭력 투쟁, 큰 규모 또는 작은 규모의 투쟁 등 여러가지 투쟁의 형태를 옹기배합하여 혁명 투쟁을 전개하고 발

전시시켜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투쟁은 투쟁 형태에 관계 없이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조선 혁명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김 일성의 이러한 폭력적 혁명의 방법은 유일하게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침이라고 「김 일성 혁명 활동」 고급 3에서 밝히고 있다. 이처럼 김 일성은 폭력 또는 무력에 의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북한 인민과 학생들에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 정책은 폭력 또는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닌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다. 통일이 아무리 절실한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라 하여도 폭력 또는 무력에 의해 동족의 유혈을 강요하는 전쟁 같은 것은 피하여야 하며, 통일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꾸준한 인내와 최대한의 이성을 발휘하여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한 것이 우리의 통일 정책이다.

한편 중공의 교과서에서는 중공과 대만과의 관계에서 통일을 위한 정책 또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B. 허위 및 왜곡된 내용 - 정치·경제 체제를 중심으로

중공은 정치·경제 체제와 관련하여 소위 자산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을 교과서에 실고 비판 또는 비난하고 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즉 자본주의 제도는 :

- 1) 자산 계급 독재를 실시하므로 국가는 소수의 자산 계급자들

의 이익을 수호하고 무산 계급과 근로 인민을 억압하는 도구이다.

2) 자산 계급이 국가 정권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무산 계급과 근로 인민은 민주주의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가 없는 피착취, 피압박의 지위에 처하여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무산 계급과 자산 계급이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3)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이윤만을 추구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물건만을 생산하므로 생산이 맹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상품이 팔리지 않아 적치되어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실직을 당하여 경제 공황을 일으킨다.

4)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는 ‘ 필연적 ’ 으로 무산계급 혁명을 거쳐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한다.

한편 북한에서도 정치·경제 체제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을 교과서에 실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가장 철저히 근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노동자, 농민의 국가이다.

2) 북한은 착취 계급도 착취 제도도 없는 먹고 입고 사는 데 근심 걱정이 없는 사회이다.

3) 사회주의 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무제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4) 북한은 김 일성의 영도하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몇백년 걸

려서 공업화한 과업을 불과 14년만에 이룩했다.

5) 북한의 근로자들은 그들의 의사와 결의를 표시하는 중요한 정치 활동인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정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행사하고 있다.

6) 남조선에서 노동자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의 착취 때문에 굶주리고 혈벗고 있다.

7) 북한의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살고 있다.

8) 잔악한 '원썩' 미제는 북한을 없애버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9) 남조선은 지금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고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통치를 위한 도구이다.

10) 미제 의사는 상처 입은 노동자들에게 독약을 발라 죽게 했다.

11) 양자로 미국에 이민간 남조선의 어린이들은 세균무기, 핵무기의 실험대상으로 죽어가고 있다.

12) 남조선에서는 김 일성에 대한 다함 없는 신뢰와 흠모의 정이 인민들의 가슴 마다에 차고 넘쳐있다. 예를 들면 남조선 인민들은 :

① 김 일성이 조선 전체(남한 포함)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생각한다.

② '김 일성 선집,' '김 일성 전기'를 연구하고 높은 덕성에 대하여 널리 선전하고 있다.

③ 삼엄한 파쇼적 폭압 속에서도 김 일성의 초상화와 공화국의 '깃발'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④ 모여 앉기만 하면 김 일성 수상은 진정으로 인민들 속에서 나온 수상이시며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분이라고 흠모하고 있다. 그러므로

⑤ 이남 사람도 잘 살려면 수상님의 직접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⑥ 모여 앉으면 김 일성 장군님의 노래를 부른다.

⑦ 감옥도 교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김 일성 장군을 지지하고 김 일성 장군 만세를 외치며 흠모의 정을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표현한다.

⑧ 김 일성 수상님이 정치를 잘하여 백성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자식들 공부시킬 걱정 등 아무 걱정이 없는 '희한한' 세상이 이북 세상이다.

⑨ 김 일성이 영도하는 이북 정치는 제일 좋은 정치이며 우리도 그이의 정치를 본받아야 잘 살 수 있다.

⑩ 그러므로 공화국 북반부를 끝없이 동반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의 미래를 찾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중공과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 또는 대한민국에 대한 허위 선전 및 왜곡된 내용을 교과서에 실고 교육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 근로자들은 그들의 민주적, 정치적 권리를 향유하며 노사협조 관계에 의해 오히려 근로자들의 이익 옹호에 앞장서고 있다. 생산과 공급은 수요에 맞추어 생산되므로 생산품의 적치 현상도 찾아보기 힘들며 기업가들은 그들의 기업 정산과 자본가적 윤리에 입각하여 사회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윤은 다시 사회에 환원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처럼 자본주의는 망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공산주의 경제 체제가 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중공은 그들의 공산주의 경제 체제로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역사적 판단 아래 자본주의 국가와의 개방 정책을 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경제 체제도 자본주의적 노선을 보여주는 경향마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정치·경제 실정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와 왜곡 선전을 계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의 노동자 농민은 헐벗고 굶주린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먹고 입고 사는 걱정 없는 생활을 김 일성이 마련해 준 사회주의 조국, 지상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남한의 근로자들이 오히려 굶주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특히나 최근의 그들의 경제 사정은 지극히 어려움이 여러가지로 입증되고 있는데도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 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의 경제회담 제의를 받아들여 그들의 경제에 도움을 받으려 하는가? 이러한 현실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우위를 자랑하고 선전하던 그들의 제도가 열등한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온갖 인민의 생활이 억압과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언론, 출판, 집회 심지어 '시위'의 자유도 보장되어 있다고 허위 선전을 하는가 하면, 굶주리고 헐벗은 남한의 인민들은 김 일성

의 덕성을 높이 흠모하여 김 일성이 한반도 전체를 통치해 줄 것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외치며 바라고 있다는 허위를 버젓하게 교과서에 싣고 북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또한 6.25는 미국이 일으켰고 그러므로 북침이 먼저 있었다는 주장이고, 재침을 위한 준비와 함께 지금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다고 허위 선전하고 있다.

이상에서 직접 간접으로 시사받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류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의 사회로 그들은 지금 그러한 이상 사회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전은 허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학생과 인민들은 잘 입고, 잘 먹고, 사는 데만 관심 가지고 공부하기도, 일하기도 싫어하며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선전한다.

한편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북한의 교과서를 살펴 볼 때에도 허위와 왜곡 선전을 일삼고 있음을 발견한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문맹자, 재산이 없는 자, 흑인 등의 근로자들에게 60여가지의 구실을 붙여 인민들로부터 선거권을 빼앗고 있으며 돈으로 남의 선거표를 사들여 대리 투표 또는 가짜 선거표를 무대기로 투표하는 등 험잡놀음이 벌어지고 있는 데 자본주의 세계에서 험잡 선거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남조선이라고 선전한다. 남조선에서는 반대 투표를 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닥치는대로 때리고 심지어 학살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고 허위 선전하고 있다.

허위 또는 왜곡된 선전 중에 가장 극심한 것중의 하나는 소위 김 일성이 조국을 해방시켜주었다는 것이다. 「김 일성 원수 혁명 활동」초급 4에서는 김 일성이 1945년 8월 9일 조선 인민군 혁명부대에 조국을 해방하는 전투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승리하여 1945년 8월 15일에 조선 인민은 그렇게도 바라고 바라던 해방의 날을 김 일성이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므로 김 일성은 잃었던 조국을 찾아준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라는 허위를 교과서에서 선전하고 북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C. 도덕 교육

북한에서는 이렇다할 도덕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교과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은 김 일성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그리고는 김 일성을 태양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그가 의도하는대로, 그가 사고하는대로 무조건 따르고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도덕적 인간의 행위요 삶이라고 강조만 할 뿐이다. 그러나 중공에서는 그들 나름대로의 도덕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즉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은 바로 무산 계급의 도덕으로 그것은 인류의 가장 숭고한 도덕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도덕의 개념은 “인간의 사상과 행위를 평가하고 지도하는 준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이 때의 사상은 이데올로기로서의 사상이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 선과 악, 정

의와 비정의 등의 도덕적 개념도 공산주의 사상에 비추어서 가리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도덕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등급 관계를 엄격히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도덕으로 공평 무사하지 못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도덕 교육은 그들이 왜곡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도덕으로서’의 도덕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즉 한국의 교과서에서 담고 있는 도덕 교육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인간으로서 스스로 ‘부끄럼 없는 생활’을 하는 데 있다. 즉 사회 규범에 비추어서도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도 부끄럼 없는 삶을 가지는 데 도덕적 삶의 근본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내용으로서는 ‘정의’의 실현을 중심으로 하는 선한 생활, 정직한 생활, 공정한 인간대우, 인간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생활, 그러므로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생활, 시비를 가리어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생활,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도덕적 삶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공과 우리가 실시하는 도덕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비교될 수 있다.

「사상 품성과」소학교 2학년에서는 예절이란 남을 존중하고 사람들이 서로 ‘단결’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표식으로 문명한 행동인 데, 이와 같은 예절은 사회주의 사회인 ‘새 중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절이 없어서 남에게 욕하고 거칠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 나쁜 사회 기풍만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 교육은 예절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예절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무엇보다도 강조한다. 이러한 도리로서 요구되는 것은 인간 서로간의 존경과 사랑이며 이의 표시로서 우리는 지켜야 할 인사와 때로는 필요한 격식으로서의 예절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예절의 근본은 웃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며 서로 도리를 지키는 인격 존중의 사상에서 비롯된다.

성실이라는 도덕적 품성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중공은 공산주의적 사상에서 풀이하고 있다. 즉 공산당이나 근로 인민들은 남을 착취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뿐 아니라 사물 까지도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를 배양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사리 사욕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실한 인민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당과 인민에 솔직하고 당과 인민과 조국에 충성을 다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계급은 근로 인민들을 영원히 압박하고 착취하기 위해 허위와 기만을 일삼는 비성실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허위주장과는 달리 우리의 도덕 교육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먼저 진실된 태도를 길러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않든 관계 없이, 일에 거짓이 없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는 성실성의 교육을 하고 있다. 성실성의 교육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흐트러짐이 없이 바른 마음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실시된다.

검소한 생활을 위해서 중공은 '간고 소박'한 생활은 공산당의 전통이므로 학생들도 고생을 이겨내고 곤란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아달라고 요구한다. 즉 가난을 참고 분투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혁명의 위업을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간고소박한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중공의 경제가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협조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위 노동의 신성 개념을 빙자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도덕 교육에서 검소한 생활의 강조는 그것이 성실한 인간의 삶의 태도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도덕적 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인 공정성에 대한 개념도 사상적 의미로 교육되고 있다. 즉, 개인, 가정, 소집단의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지 말고, 국가, 인민집단의 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소위 私心이 없는 것이 공정성이며,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공정성이라는 도덕적 품성을 배양하려면 간악한 무리인 자산 계급과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성의 본래적 도덕원리는 인간 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고 대우하듯이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우하여야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행복한 삶의 추구가 도덕적 생활과 관련해서 배제될 수 없다. 중공에서는 행복이란 노동에 의해 풍부한 물질을 생산하는 한편, 공산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의 공산주의 정신이란 주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재부를 창조해서 소위 인류의 해방사업에 일체를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행

복의 추구방법은 Marx의 이론과 같이 투쟁에 의해 얻어진다고 한다. 즉, 투쟁을 겪어 승리를 달성한 행복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므로 사회주의 조국 건설과 인류의 해방을 쟁취하자면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행복론과는 달리 우리의 도덕교육은 행복한 생활을 위한 바탕으로 건전한 신체를 단련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없는 생활을 하는데서 찾도록 교육한다. 즉, 참된 행복 추구를 위해서는 교만하지 않을 것과 이성과 자력으로 자기일을 충실히 하고 책임을 다함으로써 떳떳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복 추구가 동시에 건전한 사회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한다.

중공이나 북한의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실시하는 효나 慈愛에 대한 도덕교육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즉,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공경하고 순종으로 받드는 일이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늘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끌어 주는 도덕생활을 그들의 교육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간의 효나 慈愛와 같은 것을 등급관계를 유지하는 착취계급 관계로 보고 비판하고 있다.

도덕이란 인간생활에 있어서 서로간에 불편한 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없는 생활을 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삶은 주로 인간행위에 있어서 옳고 그름, 선과 악 등에 관련된다.

이같은 도덕적 개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고 평가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인간의 행위가 그것이 그들의 공산혁명 과업에 이로운 것이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면 옳은 것이고, 옳한 것이고, 정의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그릇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교육한다. 예컨대, 개인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로서의 어떤 도움을 주거나 희생이 따를 때, 또는 개인적 의협심의 발로 등은 옳은 일도, 선한 일도, 용감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 그 자체가 양심이고 도덕이라는 것이다.

Ⅳ. 맺 음 말

중공과 북한에서는 사상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도덕적 교육마저도 본래의 윤리학적 영역을 벗어나는 사상 교육의 일환 또는 그 연장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공에서의 사상 교육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바로 그것이다. 하나의 사상 또는 철학으로서 변증 유물론이 아니라 전체의 사상·또는 철학으로서의 변증 유물론을 교육한다. 다시 말하면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 존재하는 사상 또는 철학은 변증법적 유물론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설사 그들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 계급이 착취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철학 또는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릇된 철학, 또는 사상으로 진리가 될 수 없는 반동적인 것이므로 사상적으로 '반대'하여야 한다고 버젓하게 명문화하고 있다. 그것도 다른 데서가 아닌 진리 탐구의 전형이 되어야 할 교과서에서 말이다. 공산주의 사상 그것이 모든 인간사에, 모든 가치 판단에, 모든 도덕적 판단에, 모든 사고에, 모든 인간 행위에 준거가 되어 공산주의 사상을 '자'로 하여 옳고 그름이, 선과 악 등이 판단되고 평가된다.

낙후된 현대 과학 문명과 침체된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전 인민의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노동정신의 강화와 실시가 처절하리 만큼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음은 중공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나 그 초점은 김 일성을 위한 유일 사상 교육이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과 같이 북한 인민의 삶은 바로 김 일성을 위하여 존재할 뿐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형성은 김 일성 때문이요, 그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도 김 일성 때문이요, 앞으로의 그들의 운명도 모두 다 김 일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김 일성과 인민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김 일성은 ‘태양’에 비유 된다. 김 일성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은 한 종교의 ‘경전 (bible)’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아니 그것보다 더 큰힘으로 북한 사회에서는 작용한다. 종교인이 그들의 경전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거기에는 회개등의 행위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또한 특정 종교인의 생활을 벗어나면 되지만 북한의 인민은 김 일성의 교시를 따르지 않을 때 거기에는 엄한 제재가 가해지는 사실에서 볼 때, 김 일성의 존재는 가히 종교적 차원에 있다 하겠다.

공산주의 사상은 본래 계급 사회인 봉건주의 사회를 부정함으로써 출발한다. 그러나 오늘의 김 일성의 존재는 그 어느시대, 어느나라의 절대군주보다도 더 높은 神的군주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다.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은 이처럼 자체모순에 빠져 봉건주의 사상 그것은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그들의 사상 교육의 강화를 위해 남한에 대한 허위와 왜곡 선전으로 교과서를 더럽히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김 일성을 흠모한 나머지 그의 직접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의사 표시가 한국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남한 동포들은 미국의 식민지 통치에 시달리며 헐벗고 굶주린 생활에 지쳐 김 일성 만세를 외치며 남조선 해방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전한다.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는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양과 일반지식의 기본이 되는 교육 내용으로 진리 탐구를 위해 근간이 되는 기초 교육으로 건전한 학문적 태도와 방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공이나 북한에서의 교육 내용은 여러가지 사상이나 철학을 두루 살피면서 어떤 철학이 정말로 진리인가를, 또는 진리에 가까운 것인가를 학생 스스로가 사고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가지지 못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이미 공산당에 의해 정해진 것만을 학습하게 되어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적’이라 할 수 없다. 즉 북한이나 중공의 교과서 내용은 학문의 자유 또는 학문적 태도의 자유가 없으므로 진리의 탐구도, 교육 본래의 목적이라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 형성’도 기할 수 없다.

교육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이 결여되고, 진리 탐구를 위한 올바른 학문적 풍토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산주의 교육은 ‘인간다운 인간’의 형성에 도움 줄 수 없으므로 결국 ‘인간성 발달’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조차도 하나의 사물로서 여기어 인간의 ‘존엄성, 인간 각자가 가지는 개성, 인간의 자유, 인간의 가치 추구의 삶,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에의 발견 등, 인간을 위한 교육의 소홀 또는 완전 무시로 결국 기계적 인간을 만들어내게 됨으로써

잔인하고 포악한 인간성, 폭력적이고 호전적인 인간성 등을 기르게 될 수 밖에 없다. 투쟁, 혁명, 폭력적 방법만이 그들의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의 인간성 파멸로 자신들의 파멸을 앞 당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사상 교육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이루어져 그들의 머리는 온통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당과 김 일성을 위해, 소위 그들의 사회주의 사회의 혁명적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 유사시에는 무서운 힘으로 우리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어지럽힐 수 있는 정신 교육이 이루어져 있음을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에 비해 우리 한국에서의 국민 정신 교육은 초·중학교에서는 도덕, 고등학교에서는 국민 윤리 교과를 통해 극히 부분적인 통일 교육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행복한 생활과 국가 사회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정신교육의 중요성은 북한이나 중공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더 강화 되어야 함은 민족적, 시대적 요청이다.

〈참 고 문 헌〉

중공 :

1. 「 이야기속의 철학 」 정력군, 연변인민출판사, 1980.
2. 「 사상품성과 」 제 1 권, 소학교 2 학년 교원용, 연변교육출판사, 1982.
3. 「 사상품성과 」 제 1 권, 소학교 4 학년, 연변교육출판사, 1982.
4. 「 사상품성과 」 제 1 권, 소학교 5 학년, 연변교육출판사, 1982.
5. 「 청소년 수양 」상권, 전일제 10 년제학교 초중교과서, 1982.
6. 「 청소년 수양 」하권, 전일제 10 년제학교 초중교과서, 1982.

북한 :

1. 「 김 일성 원수님의 어린시절 」 초급 4, 학우서방, 1977.
2. 「 사회 」 초급 6, 학우서방, 1973.
3. 「 사회 」 중급 2, 학우서방, 1973.
4. 「 사회 」 고급 1, 학우서방, 1975.
5. 「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 초급 1, 학우서방, 1974.
6. 「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 초급 4, 학우서방, 1975.
7. 「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 중급 3, 학우서방, 1974.
8. 「 김 일성 원수 혁명활동 」 고급 3, 학우서방, 1972.

한국 :

1. 「도덕」 국민학교 제 3 학년, 제 1 학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3.
2. 「도덕」 국민학교 제 3 학년, 제 2 학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2.
3. 「도덕」 국민학교 제 4 학년, 제 1 학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3.
4. 「도덕」 국민학교 제 4 학년, 제 2 학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2.
5. 「도덕」 국민학교 제 5 학년, 제 1 학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2.
6. 「도덕」 국민학교 제 5 학년, 제 2 학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2.
7. 「도덕」 국민학교 제 6 학년, 제 1 학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2.
8. 「도덕」 국민학교 제 6 학년, 제 2 학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82.
8. 「도덕」 중학교 제 1 학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4.
9. 「도덕」 중학교 제 2 학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4.
10. 「도덕」 중학교 제 3 학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4.
11. 「국민윤리」 고등학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4.